

아나시오의 영성수련 지침서

포기

재크린 시럽 버간 공저
마리아 슈완
조순자 옮김



지은이



재크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이냐시오의 영성수련 지침서

포기

재크린 시럽 버간 공저
마리아 슈완
조순자 옮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성도출판사

Copyright © 1985

by Jacqueline Syrup Bergan, S. Marie Schwa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text may be reproduced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St. Mary Editions Seoul, Korea 1994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지

않게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I 요한 3, 1

목 차

추천사.....	8
머리말.....	10
한국의 독자들에게.....	11
옮긴이의 말.....	12
감수자의 말.....	14
일러두기.....	15
표지 도안.....	16
서 문.....	18

기도 안내

A. 매일기도 양식.....	21
1. 준비.....	21
2. 기도시간의 짜임새.....	22
3. 기도 후 반성.....	22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23
1. 묵상.....	23
2. 관상.....	24
3. 내심기도.....	25
4. 만트라.....	26

5. 묵상 독서.....	27
6. 영적일기.....	27
7. 반복기도.....	28
C. 영적훈련과 도움들.....	29
1. 의식성찰.....	29
2. 신앙체험 나누기.....	31
3. 기도중의 상상의 역할.....	33
4. 분심에 대한 대응책.....	33
5. 대화 : 대화식의 마침기도.....	34
사랑과 찬미의 기도.....	35
제1주 : 제1일 권능과 가능성(루가 9, 23-27).....	37
제2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루가 9, 28-36).....	41
제3일 깨어남(요한 11, 1-44).....	46
제4일 그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한 그 무엇(요한 11, 45-54).....	52
제5일 사랑으로 향유를 붓다(요한 12, 1-8).....	56
제6일 반복.....	61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2주 : 제1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마태 21, 1-17).....	64
제2일 열매 맺음(요한 12, 23-32).....	69
제3일 대야, 물, 수건(요한 13, 1-18).....	74
제4일 기억(루가 22, 14-23).....	79
제5일 비밀 장소 ; 거룩한 장소(요한 17, 1-26).....	84

제6일 반복.....	89
-------------	----

병사들은 가시관을 얹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제3주 : 제1일 어두움 밖으로(마르 14, 32-42).....	92
제2일 아빠-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태 6, 9-13).....	97
제3일 입맞춤(마태 26, 47-56).....	101
제4일 전야(루가 22, 54-65).....	106
제5일 묵이신 예수(루가 22, 66~23, 1).....	110
제6일 반복.....	114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제4주 : 제1일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다(마태 27, 11-25).....	116
제2일 헤로데 앞에서 침묵을 지키신 예수(루가 23, 6-12).....	121
제3일 심판받는 진리(요한 18, 33-38 ; 19, 1-12).....	125
제4일 성 금요일의 여정(요한 18, 13-22).....	130
제5일 왕이여 사제이신 예수(요한 19, 23-24).....	136
제6일 반복.....	139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5주 : 제1일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도전을 받으신 예수(루가 22, 39-43).....	142
제2일 어머니에서 여인으로(요한 19, 25-27).....	147
제3일 우리들 중의 한 사람(요한 19, 28-29).....	152
제4일 십자가-촉매(마태 27, 39-44).....	155

제5일 반복.....	159
제6일 비탄의 울부짖음(마태 27, 45-50).....	160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6주 : 제1일 아버지 손에 맡기다(루가 23, 44-46).....	168
제2일 주님이신 예수(필립 2, 5-11).....	171
제3일 생명과 성령(요한 19, 31-37).....	176
제4일 임금님의 장례식(요한 19, 38-42).....	179
제5일 반복.....	182
제6일 사랑의 노력(이사 52, 13-53, 12).....	183

아빠

부록 1 : 추가 기도문.....	192
부록 2 :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195
부록3 : 기도 안내 목록.....	198
성서 구절 색인.....	200
참고 문헌.....	203

추 천 사

복음화 2,000년을 향한 거룩한 교회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목 계획을 수립, 작은 공동체에서 교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초대 교회 모습을 닮아 '사귄'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 사귀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삶 안에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 강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유의 삶을 관상하고 우리의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협력하기 위하여, 믿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책,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사랑」과 「용서」와 「탄생」에 이어 「포기」는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묵상과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나오는 다섯 권(사랑, 용서, 탄생, 포기, 자유)의 내용은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기초로 하여 평신도들을 위해 쓰여진 것인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20명의 교우들에게 「사랑」에 이어 「용서」의 영어 원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4~7명의 소규모 모임과 50~60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분들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영신수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들과 가정과 작은 모임과 그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대규모 공동체 안에서, 쇠신된 삶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사랑이신 하느님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둘째 권 「용서」와 첫째 권 「사랑」, 셋째 권 「탄생」에 이어 넷째 권 「포기」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됨을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영적 심화와 복음화의 과정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4년 예수 성심 성월에
서울 가톨릭대학 김창훈 신부

머 리 말

“사람들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맞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까지도-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란 터무니없는 것, 즉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관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넷째 권 「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안에서, 종말이 아닌 영성적 성숙을 돕는 도구로서 고통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줄 것이다. 고통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때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신뢰를 지닌 신앙 안에서 자신을 내어맡길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며,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다(루가 24, 26).

앞서 번역된 시리즈의 세 권처럼 「포기」 역시,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I 베드 1, 23)과 그 말씀에 대한 성숙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안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며 때로는 고통을 통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꽃피우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이 책을 권하는 바이다.

1986년 5월 28일

크룩스톤 교구장, 빅톨 H. 볼크 주교

크룩스톤, 미네소타

한국의 독자들에게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한국말로 옮기고 출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 기도 안내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닌 희망 중의 하나는, 철저히 성서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과 일치할 갈망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겪는 삶의 체험에도 충실한 기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사용하여 혼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책들 속에서 그분들 자신의 내적 여정을 위한 기본틀과 받침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은총 가득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든 행동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한분 한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재클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수녀

웁긴이의 말

때로는 아득하게 멀리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아주 가까이
내 맘속에 살아계시는 분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당신

저는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떨리고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저려웁니다.

때로는 억수비로
제 가슴을 적셔 주시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함박눈처럼
포근히 저를 덮어 주시는 분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당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탄생」, 「포기」, 그리고 「자유」를 번역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두었던 이 글은, 서툴지만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이 시리즈를 번역하는 동안 어둡고 추운, 끝없는 터널같기만 했던 겨울이 지나갔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는 희망을 갖고 방황했던 봄도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역자는 이 시리즈를 읽고 번역하면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증거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마음으로나마 체험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시리즈를 읽으시고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독한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영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역자에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때로는 억수비처럼 또 때로는 함박눈처럼 제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창훈, 변희선 두 분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7월, 프리비턴스에서
조순자(안젤라)

감수자의 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가 한국말로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저자이신 마리아 슈완 수녀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번역해 주신 강연중 선생님, 「용서」를 번역해 주신 강구영 교수님, 그리고 나머지 세 권, 즉 「탄생」, 「포기」, 「자유」를 번역해 주신 조순자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가톨릭대학교의 영신 지도 신부로 수고하시는 김창훈 신부님의 도움과 정성이 없었더라면 이 시리즈는 완역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들에 추천의 글까지 써주신 김 신부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모출판사 정옥동 사장님의 희생적인 출판에 감사드리며, 한국 교회의 영적 쇄신에 한 몫을 담당하시는 정 형제님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1993년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축일에
Boston College에서 변희선 신부

일러두기

이 책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우선 이 책의 맨 앞 부분에 나오는 기도 안내를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영신 서적이나 소설처럼 이 책을 읽으신다면, 원 저자의 본래의 지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겠습니다.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에게서 이 책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영적인 조언자들(사제, 수도자, 평신도)을 만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영신수련에 대한 체험과 지혜가 풍부하신 분을 중심으로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을 가지면서 이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초심자들에게는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성서 구절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공동 번역 성서를 원본대로 인용하였으나, 최근에 출판된 200주년 신약 성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판 원본에는 참고 서적들에 대한 인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 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출판된 참고 서적들 중에서 몇 권을 소개합니다.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윤양석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샘-영성 수련을 위하여」 앤소니 드 멜로, 분도출판사편집실 역, 분도출판사

「성경과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에 의한 피정」 토마스 버크, 샬트르 성바오로수도회 역.

「여섯 개의 길」 G. 허치슨, 차순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영적 성장과 내적 치유」 J.J. 윌러, 박홍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성서와 영성수련」 서인석 엮음, 성바오로출판사

표지 도안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건졌소.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접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우는 소리
우리 세상이 되었소(아가 2, 11-12).

‘즐거운 노래가 울려퍼지는 계절’이 막 시작되었다. 교회 어디서나 기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겨울은 지나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돌아왔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봄을 알리는 전령(傳令)들 가운데 옛 보금자리에 돌아와 등지를 트는 새들을 들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인간의 귀소본능뿐 아니라 창의적 충동이나 초월욕구의 상징이었다.

성서를 보면 비둘기를 인용하는 구절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가에서 비둘기는 봄을 알려주고, 창세기에서 올리브잎을 물고 온 비둘기는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준다(창세 8, 1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비둘기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마르 1, 8).

첫째 권 「사랑」의 표지에 있는 한 쌍의 비둘기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상징한다. 둘째 권 「용서」의 표지는 하느님의 조건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한다. 셋째 권 「탄생」의 표지 도안은 이 세상을 떠다니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성령을 상징한다. 이 넷째 권 「포기」의 표지에 있는 빈 새둥지는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 속에서 감수하셨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다.

비둘기는 부른다: “나의 귀여운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갔어요”(아가 2, 10-11).

표지는 미네소타의 인기 화가인 캠펔(Donna Pierce Campbell)이 도안하였는데 그 아름답고 싱싱한 양식은 이 기도 안내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채신의 성령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서 문

본 기도 안내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미네소타 북서부 전역에 걸친 본당 쇄신 피정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목격한 영적인 목마름에 자극을 받아 펴내게 되었다.

신자들은 하느님과的人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며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평신도들에게는 너무도 오랫동안 교회의 중요한 영성적 전통의 자료들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차츰 깨닫게 되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이 전통 중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보배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16세기의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기 위해 씌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은 성서, 내적 쇄신 및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꼭 부합한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의 양식을 본당 쇄신 피정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 기도와 생활 환경을 연결시키면서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언어 그리고 생활양식에 걸맞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포기」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네번째 책이다. 각각의 책들은 알맞는 성서 구절들과 그에 관한 해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 안내들을 담고 있다. 각 권의 주제는 영신수련의 각 단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만 각 권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시리즈의 첫째 권 「사랑」에서는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 들어 있는 주제들을 사용하였으며, 그 주제들은 인간의 피조물성에 대한 인정,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공평성 그리고 투신 등이다. 「사랑」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둘째 권 「용서」는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첫째 주간과 관련된다. 첫째 주간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개인과 인류 전체의 죄스러움을 다루고 있으며,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죄와 죄인의 문제를 고찰한다.

셋째 권 「탄생」은 예수님의 성령을 구현시키는 인생 여정에서 각자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스스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그분의 지상 삶을 관상하도록 우리는 초대받았다.

넷째 권 「포기」는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예수의 전적인 복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어떻게 활용되며 변형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역설에 대한 숙고는 특히 중요하다; 십자가의 빛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진실과 합일의 새로운 경지로 유도되도록 하는, 걸보기에는 모순된 요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기도 안내서를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데 수반되는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놀라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깊은 신앙 가운데서 예수의 수난과 포기를 접하고 이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룬 내용과 상징은 매우 힘있는 것이다. 이 여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갈 영적 친구나 지도자를 구하도록 권한다. 본 기도 안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이 사랑의 노력이고 하느님과 타인들과의 일치로 이루는 길이고 힘이 되는 방식임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본 기도 안내서는 개인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 모임에서 신앙을 나누는 지침서로서 그리고 교구와 단체를 위한 쇄신 프로그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시리즈는 영신수련이나 그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다만 영신수련에서

발견되는 회심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동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예의 접근방법을 글로 발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고 그분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갖고 계시는 고유한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해설과 기도 안내에 성(性)의 구별이 없는 말을 사용하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이러한 변경에 마음 상할지도 모를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서 구절의 말들을 고치는 것을 삼가하였다.

우리는 본 안내서를 사용하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 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에페 1, 17-19).

1986년 6월 1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채클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수녀

기도 안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루가 11, 1).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느님께 나아간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이신 그분께 응답한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과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제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A. 매일기도 양식

기도할 때마다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1. 준비

+ 매일기도 시간을 최소한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잡도록 한다. 60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신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에 몰입하는 데에는 대개 한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 전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그 다음 날의 성서 구절과 해설을 미리 읽는다. 잠들기 바로 전에 성서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 기도 시간의 짜임새

+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넷을 셀 동안 숨을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 하느님께 당신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 당신이 선택한 성서 구절을 내용에 알맞는 방법으로 읽고 반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적인 구절이나 이야기 형태를 취하지 않은 구절은 묵상(默想)을 하고, 이야기 형태를 취한 구절이나 사건에 관한 구절은 관상(觀想)을 하십시오. (23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와의 담화(談話)로써 기도를 마치십시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3. 기도 후 반성

기도 후 반성은 기도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성찰이다. 기도 시간중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현존하셨는지를 보다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반성의 목적이다.

기도 후 반성 시간에는 주로 기쁨, 평화, 슬픔, 두려움, 갈등, 분노 등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 안에 드러나는 위안이나 쓸쓸함의 내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구한 은총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 기도 후 반성 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기도 후 반성을 영적일기에 적음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일기는 우리의 영적 여정(旅程)의 귀중한 기록이다. 영적일기의 기록은 우리의 자아

완성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영적 지도자나 영적 반려자가 없는 경우 영적일기의 기록은 기도를 평가하고 명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 영적일기의 기록은 자신의 기도 체험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준비 자료가 된다.

기도 방법 : 매 기도 시간 이후 공책이나 영적일기장에 날짜와 그 날의 성서 구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의 질문들에 답을 해 보십시오.

- +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구절이 있었는가?
- + 나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 평화스러웠는가? 사랑을 느꼈는가? 슬펐는가? 실망했는가? 이러한 느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느끼는가?
- + 다음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었는가?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성서를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람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는 기도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마침내 특별한 성서 구절에 적합하고 우리의 개성이나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본 안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1. **묵상 :** 묵상 시간에는 마치 연애 편지를 대하듯이 성서 구절을 읽는다 ; 이 방법은 시적인 성서 구절을 기도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 성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크게 소리를 내어 읽든가 속삭이는 소리로 읽으면서, 성서 말씀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며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 특히 당신의 관심을 끄는 부분에 머물면서, 마치 메마른 땅이 비를 받아들이듯이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 한 단어나 구절을 되뇌이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감지하십시오.

+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편지를 읽듯이,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합창노래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서 구절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2. 관상: 관상을 통하여 우리는 성서 구절의 사건이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전 오관(五官)을 사용하여, 상상 속에서 성서 구절 안으로 들어간다.

신학자들은, 우리는 관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회상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靈)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예수님의 영(靈)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어떤 신비를 상기시키시고 재생케 하신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빠스카의 신비를 재현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관상을 통하여 우리가 관상하는 특별한 사건을 재현하시며 그 신비 안에 현존하신다.

기도 방법

관상 기도중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 +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 + 그 신비의 일부가 되십시오; 그 현장 속의 한 사람의 역할을 맡으십시오.
- + 각 개개인을 잘 관찰하십시오; 각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각자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 + 내가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나의 삶이나 나의 가족 또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담화(談話)하십시오.

- +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계십시오.
- +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 +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되고자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 + 예수님께 응답하십시오.

3. 내심기도 :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생각과 이미지를 초월하고,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 존재의 중심부로 내려간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내심기도는 대체로 말없이 행하는, 아주 간단하며 순수한 기도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내려간다. 그 곳은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의 장소이다. 내심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성령께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겨야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 26).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께서는 “아빠, 아버지”(로마 8, 15)라고 외치신다.

기도 방법 :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시편 46, 10).

+ 조용히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으십시오.

+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는 마음을 견지하십시오.

+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다거나,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거나, 산을 내려간다거나,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당신의 깊은 자아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이십시오.

4. 만트라 : 내심기도의 한 방법으로서 ‘만트라’ 또는 ‘기도말’을 사용한다. 만트라라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구절일 수도 있다.

성서에서 따온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순간적으로 우러나온 말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말이나 구절은 하느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우는 것이 만트라의 일종이다.

기도 방법 :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은 숨을 들이 마

시면서 하고, 뒷 부분—이 죄인을 붙잡히 여기소서—은 숨을 내쉬면서 한다.

5. 묵상 독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하여 그 것을 받아 먹으니 마치 꿀처럼 입에 달았다”(예제 3, 2-3).

성서나 영성 서적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다.

영적 독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 아래의 방법은 특히 기도가 어렵거나 무미건조할 때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영적 독서를 천천히 하면서, 가끔 독서를 중단하고 어떤 말이나 구절이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도록 한다. 어떤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면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의 전부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한다. 당신 안에 받아들인 말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듯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하십시오.

6. 영적일기: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에페 3, 4).

영적일기는 묵상의 기록이다. 우리가 펜을 들어 우리의 생각을 종이에 옮길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참된 자신을 드러낸다.

영적일기를 쓰는 것은 다른 기록들과는 차이가 있다.

영적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며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체험한다. 따라서 영적일기를 잘 쓰기 위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묵상 기록은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지나간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더욱 강해지고 오랫동안 남아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적일기의 기록은 분노, 두려움, 또는 원한과 같이 드러나지 않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일기를 씌으로써 우리가 읽는 성서의 말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일기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다 :

a. 하느님께 편지 쓰기

b.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기록 ; 다른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 또는 가치와 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죽음, 이별, 지혜 등을 의인화(擬人化)하여 그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다.

c.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록 ; 예를 들면,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마르 10, 51) 또는 “왜 울고 있느냐?”(요한 20, 15).

d. 예수님이나 다른 성서의 인물이 펜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게’ 한다.

7. 반복기도 : “내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겠다”(성 이냐시오 로올라).

반복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시어 일하시도록 지난 기도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보다 잘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는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반복기도는 지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지난 번에 가졌던 대화를 회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반복-추후의 대화-을 통하여 첫 기도 시간에 느꼈을지도 모르는 슬픔이나 후회를 변화시키시는 치유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다.

반복기도 시간에는 위로(기쁨, 파스함, 평화)의 느낌이 깊어질 뿐 아니라 쓸쓸함(고통, 슬픔, 후회)의 느낌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쁨이나 슬픔 또는 혼란을 두드러지게 체험한 때의 기도를 선택하여 반복한다. 아마도 기도 준비의 부족으로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의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지난 번 기도 시간에 체험한 느낌들을 상기하십시오.

+ 출발점으로, 지난 기도 시간에 가장 두드러졌던 장면이나 말 또는 느낌을 사용하십시오.

+ 기도 시간중에 성령께서 당신 마음의 내적 움직임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C. 영적 훈련과 도움들

1. 의식 성찰: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훤히 아십니다”(시편 139, 1).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우리는 의식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으며, 우리는 그날 하느님의 현존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발견하게 된다.

성 이냐시오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성 이냐시오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의식 성찰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의식 성찰을, 통회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양심 성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식 성찰은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감정들 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기도 시간 후에 기도 후 반성을 하듯이 우리는 하루 생활이 끝난 후 의식 성찰을 한다. 의식 성찰을 매일 제대로 실천하면 하느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라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완전한 균형을 얻게 된다.

의식 성찰은 다음을 반영한다: “인격적인 사랑의 역동적인 움직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순서대로 말하고 싶어한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함께 제서 주십시오.”

방법: 의식 성찰을 위해 다음의 기도를 제안한다.

이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영적일기에 함께 기록할 수도 있다.

+ 아버지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나이다. 오늘 폐폴어 주신 은총에 대해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 주님, 당신은 시간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밝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일하심을 믿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꾸며주시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당신의 길에 놓는 장애물들을 보다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

+ 당신은 오늘 제 삶 속에 함께 계셨나이다. 이제 제가 다음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오늘의 사건 안에 현존하신 당신……

제가 느꼈던 감정들 안에 현존하신 당신……

당신의 부르심……

저의 응답……

+ 아버지, 당신 사랑의 용서와 치유를 간청하옵니다. 제가 치유되기를 가장 바라는 오늘의 특별한 사건은……

+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으며 희망에 가득 차,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며……(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그 은총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을 굳게 확신하나이다.

2. 신앙 체험 나누기: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마태 18, 20).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핵심 문제에 대해 공동체원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대화란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혼자서 하는 매일기도의 연장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은 토론 집단도 아니고 감수성 훈련이나 사교 모임도 아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지적 또는 신학적 견해를 나누고 얻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미리 설정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집단으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몸소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신앙 체험 나누기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이다(에페 4, 12).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 체험 나누기의 한 방법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나누도록 우리를 부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체험 나누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시는 힘이신 그리스도의 영(靈)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의미한다.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약돌이 떨어지는 풀장을 상상해 보라. 풀장 주위에 모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회원들은 원형으로 모인다. 물 속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조약돌처럼 각 회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눈다. 모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각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동심원들을 그리며 풀장의 가장자리로 변해나가는 물결처럼, 이 말씀들은 원 주위에 둘러선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랑 안에서 확대되고 변해 나간다.

방법: 미리 약속한 장소에 일곱 명 내지 열 명의 회원이 모인다.

+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얼마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고 초대한다. 이때 회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 지도자는 즉흥적인 기도나 미리 준비한 시작기도로써 침묵의 기도를 모은다.

+ 회원 중의 한 사람을 미리 정해서 각 회원이 혼자 기도하며 묵상해 온 성서 구절을 읽는다.

+ 성서 봉독 후 잠시 침묵한다.

+ 지도자는 각 사람에게 성서에 나오는 한 단어나 구절을 함께 나눌 것을 초대한다.

+ 다른 회원이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그 후 잠시 침묵한다.

+ 지도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서 구절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

는지-도전, 위로, 초대 등-간단히 나누도록 초대한다.

+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 회원들은 주님께 즉흥적인 기도를 바친다.

+ 지도자는 축복의 말이나 주의 기도 또는 성가로 신앙 체험 나누기를 마친다.

+ 헤어지기 전에 다음의 모임을 위한 성서 구절을 발표한다.

3. 기도중의 상상(想像)의 역할

상상이란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되살리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이다.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면에 끌어올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영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의미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보다 깊은 현실을 상징한다.

활력있는 상상을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완전성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활력있는 상상을 신앙의 자세로 기도에 이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권능과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된다.

성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고 감각적인 영상들을 풍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기도할 때 활력있는 상상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효과가 있다.

성서 이야기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4. 분심(分心)에 대한 대응책

기도중의 분심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분심이 생기면 그냥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그대로 두고 기도의 소재로 돌아가면 된다. 만약 분심이 계속되면, 그것은 분심의 대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생각해 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결 상태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5. 대화 : 대화식의 마침기도

성 이냐시오는 매우 민감하여, 예수 수난을 묵상함으로써 내면 깊숙이 감명을 받았다. 매 기도시간 끝 무렵에 대화식의 긴밀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과 동정의 감정이 가슴 깊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 뜨거운 고백을 하게 된다. 그 기도는 예수의 수난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때때로 대화식의 마침기도는 그들의 좌절, 유혹 두려움을 표출하거나 예수 수난의 동참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혹자는 예수 수난을 체험하고 싶은 열망으로 기도할지도 모른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수난 앞에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심오한 기도가 될 것이다.

사랑과 찬미의 기도

주 하느님, 당신의 사랑이 넘쳐 흘러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미 당신은 저를 생각하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나이다.

오! 하느님! 나의 마음이 항상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 힘을 제게 주소서.

주 하느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건강도 질병도

부(富)도 가난도

명예도 치욕도

장수(長壽)도 단명(短命)도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외의 그 어느 것도

구하거나 택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첫째 주, 첫째 날

권능과 가능성

루가 9, 23-27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이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해설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지금 체험하게 되리란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꺼야”라고 한 친구가 말했다.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가능성을 갑작스럽게 새로운 방법으로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나는 며칠 동안 지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사랑의 창조주가 그분의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랄 만한 선물이다. 부활로 거듭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힘과 방향을 발견한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한 루가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살아 있는 부활 의식 안에서 워혀져야만 한다.

루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키워나가야 할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 자신의 말씀 안에서 전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충실성을 강력히 요구하신다.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곤란함도, 창피스러움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

모든 이가 불리움을 받았다. 이 단호한 요청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 각자의 여정에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준엄한 부름 속에도 선택의 자유는 있다. 그 선택은 “나는 어떻게 사랑해 왔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답변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아니면 이타적이었는지를 밝혀 줄 것이다. 가장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추구하는 중에 우리는 주로 자기 향상과 자기 안전만을 도모해 왔는가, 아니면 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관심으로 나가게 되었는가?

루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근본적인 역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잃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다”라고 말한다.

사도가 되라는 이 부르심에 ‘네’라고 답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어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에 따르는 모든 기쁨과 성공, 실패 그리고 실망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삶이 지닌 불확실성과 긴장, 비합리성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마주 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상반된 양면이 우리 삶의 현실을 움직이며 모양을 지어줌에 따라서 그 리듬에 예민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모험을 용기있게 감행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 24)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상황들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떠맡으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특수한 신분과 사명을 공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특수한 운명을 공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은—모든 진실한 관계들이 그러하듯이—역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그는 혼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롭게 일치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길은 사랑의 길이다. 이 사랑의 길은 인생의 명예이며 예수께 그리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여주는 성령의 협조적이고 균형을 이룬 가능성이다. 이 인생의 명예를 함께 나눔으로 해서 사도적 삶의 핵심인 창조, 기쁨, 성취의 가능성들을 한없이 갖게 된다.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떼고 내 제자가 되시오……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마태 11, 28-39).

기도 안내 : 개별적인 초대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예수께서는 자리를 함께 하자고 나를 초대하신다.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따뜻한지 쌀쌀한지에 주목한다. 제자들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들이 나의 출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환영하는지를 알아본다.

조용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의 표정을 살핀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울리도록 마음을 연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깨닫는다.

예수께서 말씀을 끝마치고 제자들이 자리를 뜬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 예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몸소 나를 초대하신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때의 느낌들, 예를 들어 흥분, 두려움, 혼란, 긴박감, 기대 등을 그분께 말씀드린다.

+마침기도

예수께 내 마음속의 열망을 말씀드린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느낌과 응답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둘째 날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루가 9, 28-36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해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깨달음의 절정의 순간들이 있다. 그러한 체험을 남들과 나누려고 시도해 보았자 별로 소용이 없다. 언어란 무미건조하고 공허하며, 그 순간의 초월적인 충만함을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깨달음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며 집약적인 효과가 있는 표상이나 상징들을 찾는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친구이자 지도자인 예수에게 비추어지는 하느님의 영광에 경이와 기쁨으로 압도당해 있었다. 기쁨에 싸인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외친 것이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연례행사인 가을 잔치, 즉 초막절을 지내며 유대인이 체험하던 기쁨을 나타내는 가장 강한 표현을 본능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이 큰 행사를 기다린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풍요로움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다음 해에도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 모두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간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언덕빼기와 지붕 위, 마당의 한구석 등 어디든지 자리가 나는 곳에 작은 오두막(초막)들을 지었다. 초막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짓고 과일로 장식을 했었다.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이 즐거운 축제 동안, 사람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온종일 즐거움과 찬미로 시간을 보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즐겁게 치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미를 드리는 근사한 행렬이 이른 아침에 시작된다. 남자들은 흰옷을 입고 밤새도록 횃불을 밝혀 들고는 성전 마당에서 춤을 추었다.

이 성대한 축제가 얼마나 화려했던가에 대한 기억은 일년 내내 유대인들을 정신적으로 받쳐주었으며 살찌워 주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하나는 예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짓겠다고 한 것은, 영광스러운 변모의 순간을 연장하고 축하하며 기념하겠다는 깊은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초막절에 관련된 상징을 사용하여 루가는, 하느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신비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드로와 그 밖의 다른 두 제자들은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자신이 치뤄야 할 탈출, 즉 곧 다가올 고통과 죽음과 영광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떠나가는 것과 예수를 따름으로써 갖는 새로운 희망에 양보하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영광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특전을 받았던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었던 말을 다시 듣게 되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라.” 이 목소리는 하느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신원을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이사 42, 1).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인 놀라운 구름에 덮인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믿음으로 맺어진 제자들은 헌신적으로 복음 말씀을 지키면서 그 복음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사명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린 후에는 예수 한 분만 보였다.”

변모의 산은 갈바리 산으로 이어져 있다.

예수께서는 변모의 산에서 ‘결연히’ 그분의 운명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할 준비를 하신 것이다(루가 9, 51). 믿음이 확고해진 제자들도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 역시, 초막절에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던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

이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시편 118, 24. 29).

기도 안내 : 구름에 덮이다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분을 동행하여 산에 오르자고 초대받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산에 오를수록 변해가는 장관을 멈춰 서서 봄과 동시에, 내가 짊어지게 될 어려운 과제를 자세히 생각해 본다.

정상에 오르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챈다.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에 들어간다.

하느님과 깊은 대화에 빠지시는 예수님을 기도중에 관상한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자세, 이 모든 태도에 반영된 사랑의 일치를 본다.

나 자신이 예수님 안에 깃든 하느님의 영광에 열중하도록 한다.

모세와 엘리야의 현존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주의깊게 듣는다.

이러한 일이 진행됨에 따라, 나도 베드로의 흥분과 그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의 열망에 빠져든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구름이 우리 모두를 덮는 것을 깨닫는다. 나를 향해서 “이는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나의 느낌을 깨닫는다.

+마침기도

예수님과 단 둘이 되자 감사하는 나의 심정을 표현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생각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요한 11, 1-44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앓고 있는 라자로
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
습니다”하고 전했다.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들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하고 걱정하자. 예수께서는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들어간다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하시며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
는 죽었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 곳으로 가자.”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딘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합시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었다. 마리아는 이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곡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뵈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울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라자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 라자로처럼 우리도 혼수 상태, 고독, 자기 중심,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잠을 자고 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비극’인 것이다.

극작가 유진 오닐은 그의 작품 “라자로의 웃음”을 통해 죽음 속에서 삶을, 혼돈 속에서 창조(창세 1, 2)를 확인하려는 필연적인 투쟁을 훌륭하게 그려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비극이다! 네 안에 살아계신 신을 너는 잊고 있다!”

우리가 탈출하여 빠져들어가는 잠은 곧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잠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부정이다. 고립, 움추림, 불신은 무의미한 거울을 알리는 전조(前兆)이다.

우리는 스스로 타성에 젖어 있으며, 인생의 모험과 기쁨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잠’이라는 거짓 위안을 선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긴장병으로 인한 죽음에 빠져든다.

“너는 잊고 싶어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자 갖는 굉장한 큰 의무를 의미한다—관대하게! 사랑으로!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주는 고리이다. 예수께서 “라자로야, 나오너라”하고 당신의 친구를 부르셨듯이,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나오너라!”

주의를 잘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묻혀

있는 깊은 곳까지 들려온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육체적인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예수를 믿으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다.

라자로의 예수의 권능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이다.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로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에로의 길을 열어 주는 열쇠는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분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믿는 믿음이 생명에로의 열쇠인 것이다.

이미 현존하는 존재의 충만은 단지 예수의 인격을 향한 우리의 “아멘”을 기다린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인생의 날카로운 자각 속으로, 고통과 희망의 모든 역설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에 빠져 있는 병든 세상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탈출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죽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너무도 병들어 있어 생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예수께서 오신 곳은 바로 이러한 거부와 불신의 세계이다. 라자로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다. 예수에게 도피가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도피란 없다. 생명에로의 길은 예수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역설적인 길이다. 즉,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요한 12, 24-25: 15, 13).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예수 안에서 미래는 현재가 되며, 끝은 바로 지금이다. 라자로의 깨어남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약속과 기쁨이다.

그리고 라자로의 웃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내 가슴은 ‘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하느님의 웃음 속에서 나는 웃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기도 안내 : “나오너라”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라자로처럼 무덤에 묻혀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어둠, 축축한 냉기, 고독, 감금된 기분을 체험한다. 무덤 속의 벽들을 감지한다.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이 이 감옥을 이루는 돌이 되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

그 돌들은 냉담, 자기 중심, 두려움, 불신, 자기 의심, 나쁜 의미에서의 무지함, 상처가 아물지 않은 기억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나의 무덤을 이룬 돌 하나하나에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써 넣는다.

나의 자유를 가로막는 입구의 큰 돌에 주의를 집중한다.

홀로 있는 가운데 “나오너라”하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귀 기울인다.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야, 나오너라”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씀을 만트라(화두)로 사용하여 듣고 또 들으며 내 가슴 속에서 되울리게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돌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릴 생명의 자유로 나를 불러내 주시도록 한다. 그분께서 내게 묶인 것을 풀고 자유롭게 해주시도록 한다.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 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19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현재의 느낌들에 특히 주의하며, 기도중에 떠오른 것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요한 11, 45-54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그래서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백성을 짓밟고 말 것입니다”하며 의논하였다.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을 한 셈이다. 그 예언은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리라는 것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었다. 그 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이상 더 유대 지방에서 드러나게 나다니지 않으시고 그 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지방으로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계셨다.

해설

대제관 가야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멸망을 면하는 편이 더 이롭다.” 예수께서 수행하셔야 할 마지막 임무에 대한 이 말이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지도자인 가야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풍자적이다.

그 중대한 해의 대제관이었던 가야파는 정치적인 사리추구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는 예수를 거세해 버려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로마인들이 성전을 허물어 버릴까봐 두려웠던 그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바로 새로운 성전(요한 2, 19)임을 알아볼 만큼 그의 믿음이 도약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사제의 추종자들 중에는 예수를 거부하는데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지 못했던 가야파는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도록 영향을 끼친 것이다.

육 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징표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요한 9),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요한 11, 1-44).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다. 예수께서 불러일으키신 열정에 지배층은 위협을 느꼈으며,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초래하는 촉매 작용을 했던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바리사이파인들이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 즉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은 결정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예수께서는 “한 민족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까지 한데 모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에서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신 것이다. 사실 가야파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말했던 것이다.

기도 안내 : 예수께 대한 응답

+매일기도 양식(21쪽)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주는 징표들을 되새겨보며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을 다시 상상해 본다 :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장님, 하혈증이 치료된 여인, 다시 살아난 라자로…….

나 자신이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주는 징표들을 목격하는 구경꾼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본다.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지, 의혹에 싸여 있는지, 위협을 느끼는지. 흥분되어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바라본다.

특히 목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예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본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에 주의한다. 나 자신은 예수께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감지한다.

대제관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예수께 주어지는 죄목들을 주의해서 듣는다.

장로들이 예수를 처형할 음모를 꾸미는 소리를 듣는다.

바리사이파인들의 비난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나의 느낌을 예리하게 깨닫는다.

나 자신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구원하셨던 ‘사람들’ 중의 하나임을 깊이 생각해 본다.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 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19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현재의 느낌들에 특히 주의하며, 기도중에 떠오른 것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다섯째 날

사랑으로 향유를 붓다

요한 12, 1-8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라자로가 사는 고장이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티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리옷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다면 삼백 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해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께서 베다니아로 다시 가셨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거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압도되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리낌도 자의식도 모두 떨쳐버리고 완벽하게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드문 순간 중의 하나

였다.

베다니아에서 마리아가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로 예수 발을 씻겨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마리아는 예수께 대한 깊은 사랑에서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동시에 그녀의 본능적인 행동은 잠재의식 속에서 예수께 대한 사랑과 이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습에는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식을 치를 때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녀가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행동은 예수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여실히 예시해 준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셨다: “이 여자는 내 장례일에 대비하여 향유 내음을 간직 하려는 것이오.”

온 집 안에 향유 내음이 가득 찼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몇 세기를 거쳐 이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고 축하해 왔다. 온 집 안에 퍼진 향기는,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에 퍼져가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현존이 지닌 본질을 상징해 주는 것이 되었다(이사 6, 3).

불행히도, 그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어둠의 그림자로 비뚤어져 있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일에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감지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오직 분별 없는 사치와 어리석은 낭비로 보았다.

예수를 사랑했던 마리아와 믿음이 결핍되었던 유다는 서로 놀랄 만한 대조가 된다.

군중 속에서,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이 지닌 의도와 취지를 분명하게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불만 섞인 비난을 나무라셨다: “이 여자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예수께서는 유다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셨다. 동남을 주는 일이나 그 밖의 다른 정의로운 일들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지내는 일과 같은 자선 사업이 우선적이며 더 완전한 일로 취급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상실감으로 인해 곧 극심한 가난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사회적인 가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향한 마리아의 사치스러운 사랑의 선물이 시기에 맞게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힘과, 우리가 그분께 존경심을 갖고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죽고 묻히신 예수께 마리아가 자기가 지니고 있던 값진 것을 사랑으로 바친 것은 오직 사랑만이 죽음을 초월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아가 8, 6) 증명한다.

베다니아의 마리아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에 살아 있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셨으며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며 용기를 갖는 것이다(에페 5, 2).

기도 안내 : 향기로운 예물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과 내심기도 : 24~25쪽)

베다니아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예수와 함께 모여 있는 친구들이 기쁨에 젖어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의 심층 기저에 서려 있는 슬픔과 두려운 감정도 깨닫는다.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내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주의한다.

마리아를 지켜본다. 그녀가 예수의 발을 향기 높은 향유로 문지를 때 그녀의 얼굴에 어떤 내면의 심정이 나타나는지 알아챈다. 향기가 부드럽게 나를 감싸도록 한다.

향기를 예수의 현존으로 상상한다. 예수의 현존인 이 향기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숨을 쉰다. 이 현존이 나의 온몸에…… 내 몸 속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예수의 정수로 가득 차도록 한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도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예수의 얼굴에 대해 관상한다. 그분의 눈 속에서 그분이 이 순간에 대해 더욱 깊은 의미를 감지하고 계심을 본다. 그분과 일치한다.

나도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바르려고 마리아와 함께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마침기도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가슴을 향해 친밀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도록 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생각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여섯째 날

기도 안내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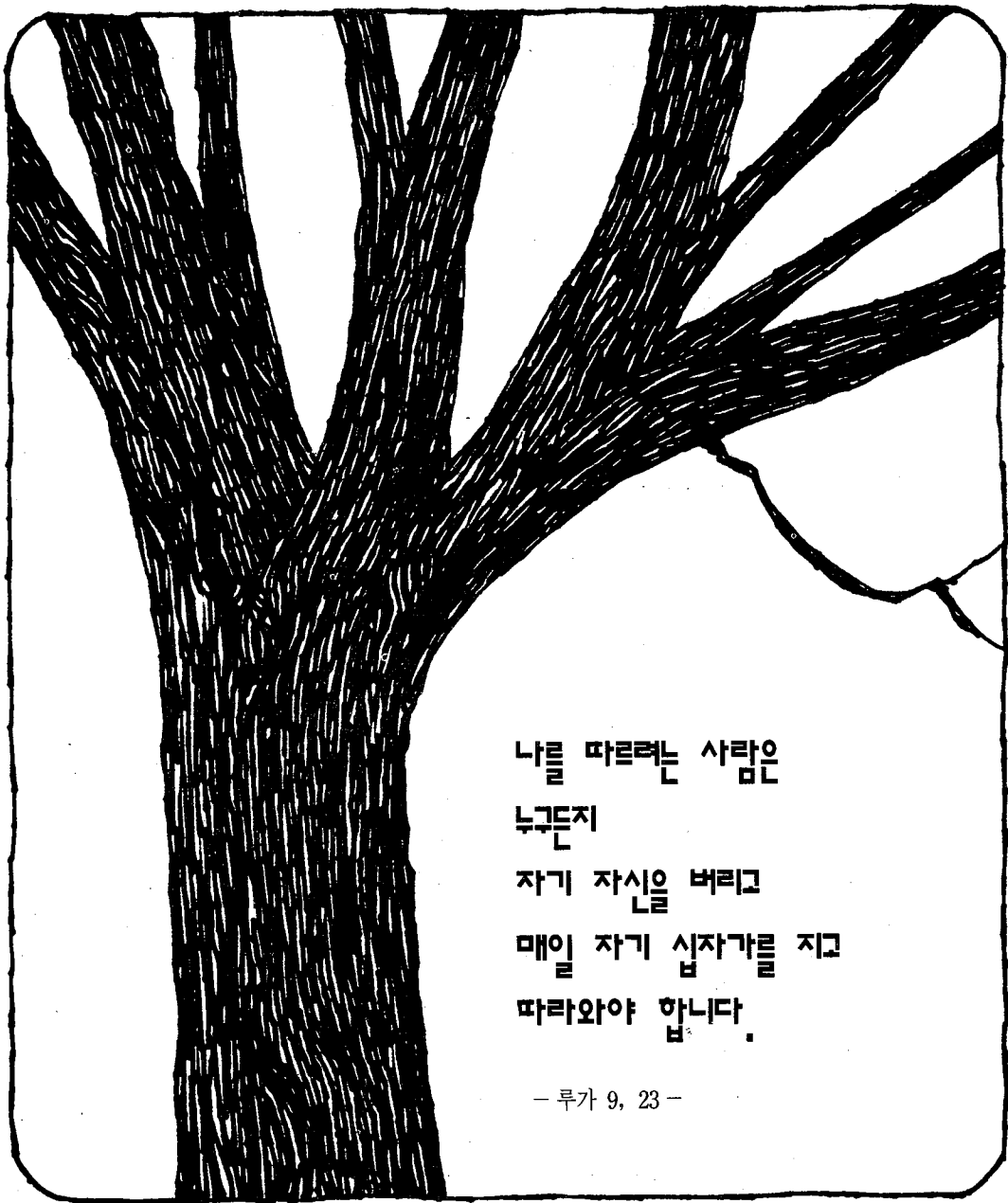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때 비탄에 젖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 청한다.

+기도 방법 : 28쪽의 반복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혹은 깨달음을 얻었던, 혹은 혼동을 체험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기도 후 반성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 루가 9, 23 -

마태오 21, 1-17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 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러라.

네 임금의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고 오신다”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퍼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해설

만약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거나, 희망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을 믿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다!”(1 디모 1, 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극적인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갈망과 기대 속에 자신들을 살게 한 희망이 이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예수를 경축하였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 자신이 무대 장치를 하신 매우 상징적인 하나의 극이다. 오랫동안 구세주께서 그리로 나타나시리라고 기대되었던 올리브 산으로부터(즈가 14, 4) 예루살렘으로 오기로 선택하신 분은 예수였다. 평화로운 시대에 왕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나귀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스스로 평화의 왕으로 칭하신 것이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기대했던 구세주임을 파격적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느님의 아들이자 자유를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시게 될 성전으로 가시기 위해 도시를 지나가신

예수의 행진은 위엄 있고 왕다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겹옷과 나뭇가지들을 그가 지나가는 길에 펼쳐 놓았다. 그들은 모두들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였다. 예수의 모습과 이 사건이 지닌 의미가 사람들을 매우 열광시키어, 온 예루살렘 도시가 밀바닥까지 흔들리는 듯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바야흐로 자신의 수난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그들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사랑을 베풀어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그들을 초대하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알아보고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알렸다.

예수께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기대와는 매우 상반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활동 무대는 정치적 동맹이 결성된 외교 관저가 아니었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 고서라도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전쟁터도 아니었다. 그렇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앞을 못보는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가운데서 활동하셨으며, 절름발이들과 불구자들의 몸과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분은 진정한 겸손, 즉 내면의 힘에서 생겨난 겸손을 지니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도시 한복판으로 그리고 성전 뜰 안으로 곧장 들어오셔서 성전을 하느님의 집이라고 선포하시며 본래의 상태대로 만드셨던, 백성들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는 두려움 없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힘을 갖고 계심을 드러내셨다.

예루살렘에로의 놀라운 행차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세우시는 권능은 그분이 영광 속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를 예시해 준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셨을 때와 같이 이번 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희망으로 채워 주었으며, 고난을 겪었을 때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장렬한 행진 대열 중의 일부 분이다. 예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상이 된다. 예수와

일치하여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 조각나서 온전하게 되길 갈망하는 세상에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의 현존을 가져온다.

기도 안내 :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루살렘 시내의 좁은 거리에서 군중들 속에 섞여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사람들로 붐비는 바쁜 도시의 광경들, 소음들, 냄새들을 아주 세밀히 상상한다.

행렬이 다가올 때 흥분으로 들끓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나귀 위에 앉아계신 분을 보려고 애쓰면서 내 주위에서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사람들을 느낀다.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며 느끼는 나의 감정들, 흥분, 혼란, 두려움, 갈망, 희망, 의혹, 기대……를 깨닫는다.

나 자신의 반응을 상상한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가담할까, 아니면 뒤로 쳐질까?

내가 행렬에 참여했을 때 가지게 될 느낌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 가지게 될 나의 느낌을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깨닫는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그분의 표정에 그리고 이 순간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주의한다.

“이분이 누구요?”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응답을 한다.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 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19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현재의 느낌들에 유의하면서, 특히 기도중에 예수를 더욱 가깝게 따르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둘째 날

열매 맺음

요한 12, 23-32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예수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탄생의 시간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생명의 열매인 자신의 영광을 예시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산력을 예로 드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의 비유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체험을 허락하며 자연이 지니고 있는 다산성의 훌륭함을 깨닫게 한다.

끊임없는 변신 속에서, 겸손한 ‘썩은’ 씨앗은 밑동의 줄기가 되고 잎들을 피우며, 긴 줄기는 두툼한 봉오리가 되어 그리로부터 다양하게 초록색과 황금색의 잎들과 찬란한 색깔의 꽃을 피워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꽃이 향기를 내며 시들어져 모양과 색깔, 밀도, 맛과 냄새가 한없이 다양한 농축된 열매로 성숙해진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믿음 깊은 사람들의 본보기이시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고 거부를 당했으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곤욕과 고난을 당했다. 그는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잘리워 나갔다”(이사 53, 2-5. 7-8).

요한 복음의 이 구절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응답해 주신 그리스의 이교도들이야말로 예수께서 자신을 바침으로써 맺어진 열매의 표본이다. “……그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자기 영혼이 수고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며 만족하게 될 것이다”(이사 53, 10-11).

이교도들의 존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 모든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음을 상징해 준다. 이교도들이 예수께 온 것은 예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분께 알리는 신호였다. 화해의 시간이 왔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통해 그분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렸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은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께서도 두려움을 겪으셨으며, 하느님 아버지께 면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죽음의 공포와 생명에 대한 집착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셨다.

예수의 순종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새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피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하게 진실된 길로서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자기 생명 추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 인생의 밤이 다가오면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이기심 없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어 예수의 기도를 확인하셨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셨을 때처럼, 다시 한 번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재확인시켜 주셨으며, 그 답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재확인시켜 주신다. 그분의 죽음은 창조를 발전시키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최고로 승리한 것이다. 모든 창조물은 예수와 하나가 되며 그분의 성령 안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풍부한 열매’를 생산하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어 오고 있다.

기도 안내 : 나의 나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기도 방법(관상 : 24쪽)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상상한다. 내가 태어나던 날의 날씨가 맑았었던가 아니면 흐렸었던가를 생각해 본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의 부모님께서 심으셨던 과일나무를 본다.

나의 나무가 심어진 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본다. 그것은 아마도 과수원 안에 있는 빈터 중 한 곳, 마당 한귀퉁이에 심어져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나의 나무를 보는 내 마음을 알아본다. 예를 들어 그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바르게 혹은 비뚤게 자랐는지에 따라 흥분감을 느낄 수도, 실망이나 혹은 놀라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그 나무를 관찰하면서 가지들이 퍼져나간 모양과 나뭇잎들의 색깔을 바라보며 나무 주위를 돌아본다.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 껍질을 만져보고, 그것이 부드러운지, 이상한지, 거친지를 알아본다.

열매가 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상상해 보며, 그 나뭇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지 빈약한지, 아니면 전혀 열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열매의 품질, 색깔, 향기에 주목한다. 열매를 하나 따서 그 겉을 만져보고 맛을 본다.

나의 나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점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무에게 이야기를 걸고, 그 나무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을 듣는다. 나 자신이 나무가 되어 본다. 나 자신이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키와 성격과 열매들을 나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 본다.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본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가지에서 열매를 따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 그분께서 나의 과일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응답한다. 계속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께 이야기한다.

예수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나는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떠날 차비를 하며,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나의 나무가 씨앗이었을 때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나무를 경건하게 바라본다. 내가 도착한 후에 나의 나무와 열매들이 변했는지,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 본다. 나는 나의 나무와 풍성하게 열린 열매들 안에 들어 있는 씨앗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차린다.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 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19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것들을, 특히 그 때의 느낌들에 주의하면서 영적일기에 적는다.

요한 13, 1-16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막나는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 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것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겹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올 수는 없다.”

해설

대야와 물과 수건-, 비범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얼마나 평범한 도구들이 사용되었는가!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극진한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게 하였다.

예수의 이 고의적인 행동은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분께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신가를 나타내 준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린 행동은 앞으로 그분의 시신을 염하게 될 일을 예고한 것이었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행동도 그분의 다가오는 죽음을 상징해 주며 그것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고 치료해 주며 예수 안에서 그들이 상속받을 것임을 보장해 주는 그분의 사랑의 극치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 일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깃든 이야기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순간은, 예수에게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칠지도 모를 가능성 앞에서 감히 자신을 내어맡겼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친밀함이 깃든 순간이다. 유다가 품고 있는 사악한 의도로도 그 선함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

이 단순하고 인간적인 행위는 수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자라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승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제자들이 성숙하게 사명을 시작하게 되리란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일을 당신들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겹옷을 벗어 놓으셨을 때,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깊게 자각하고 계셨다. 노예가 하듯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스승이자 주님이신 그분은 몸소 섬기는 사랑, 획기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다. 이 뒤바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역할을 해보이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되도록 당신 제자들을 부르셨다(요한 15, 13).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에 부으신 물은 정화시키는 물이며, 그분 자신을 비우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분의 사랑의 행위는 엄청난 것이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후에나 그 완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 때에 가서야 그들은 그들의 체험이 세례의 상징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새롭게 탄생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며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었다.

대야와 물과 수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즉 그분의 사랑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강한 예언적 상징이 되었다.

기도 안내 : 사랑으로 발을 씻음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께서 어느 주일 아침에 우리의 교회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상상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 손을 벌리며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대화하듯이 “이제 나는 당신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스쳐 지나는지 혹은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알아낸다.

예수께서 모여 있는 군중들을 넘겨다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신다. 그분이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혹은 기꺼이 일어서며 응답하는 것을 본다.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며, 사랑과 겸손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본다.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지나셨던 이 두 가지의 자세들을 나 역시 내면에 지니려고 주의한다.

예수께서 자신이 특별히 부르셨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본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성소 안에 앉으라고 초대하신다. 그리고나서 그분은 천천히 사랑에 넘쳐,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 몇 장을 가져오신다. 그분은 겹옷을 벗으시고 우리 앞에 서신다. 그분의 옆구리와 두 손과 두 발에 나 있는 상처의 흔적을 알아본다.

예수께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나의 두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다. 당황스러움, 혹은 신기함과 경외심…… 온화함 등과 같은 나의 느낌을 예민하게 깨닫는다.

예수께서는 발씻기기를 마치신 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시오.”

나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나를 위해 예수께서 지나셨던 친근함과 사랑을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 나의 교회 공동체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고 생각에 잠긴다.

+마침기도: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진심에서 우러난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기도를 마친다. 이 기도가 나의 희망과 필요, 찬미, 감사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개인적인 우정을 나누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나의 기도중에 떠오른 느낌과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넷째 날

루가 22, 14-23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왔는지 모른다. 잘 들어 두어라.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뜻이 하느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하시고는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다”하셨다. “그런데 나를 제 손으로 잡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잡아 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그런 짓을 하려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물었다.

해설

우리의 하느님은 기억하시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안에서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분의 제자들과 저녁을 함께 나누셨다. 이 최후의 만찬은 즐거운 기억과 감사와 약속을 축하하는 잔치였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신의를 함께 축하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기억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다가올 예수의 죽음과 곧 일어날 배신에 대한 비탄으로 채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향기가 있다.

예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욱 풍요로운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현존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저녁식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제자들은 예수와 동등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제자들도 역시 예수의 임무를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것은 죽음을 능가하는 사랑이 깃든 우정의 결속이었다(아가 8, 6).

이 만찬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내는 해방절에 있었다. 해방절은 과거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던 중요한 체험을 상기시키며 되새기는 것이었다(출애 12, 1-14).

그것은 찬미와 정성들인 예식의 잔치였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상기하면서 예식은 축복과 포도주로 시작된다. 그리고나선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통의 쓰라림을 상기하기 위해서 쓴 나물이 주어진다. 식사 중 이 때가 되면, 제일 나이 어린 아들이 “오늘밤은 무슨 뜻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의를 지키셨던 이야기를 해주며 자손들이 장래에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심어 준다.

시편을 노래하고 두번째 잔의 포도주를 마신 후, 새로 구운 누룩 없는 빵을 축성한다. 그 빵은 구운 해방절 양고기와 함께 먹는다. 또 한 번의 축복과 세번째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식사가 끝난다. 기념 예절은 다음과 같은 찬미의 시편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시편 118, 26).

하느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신의와 사랑이 깃든 친절을 되풀이 하신다.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된다(시편 136).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해방절 예식의 상징을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 하셨으며 더욱 완전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

예수께서는 첫 잔을 드시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 제자들과 다시 함께 포도주를 드실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누룩 없는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빵은 이제 더 이상 속박 속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이 아니라, 자유의 빵이 되는 것이었다. 그 빵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해방절 식사에서 세번째 잔을 당신의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다(예레 31, 31-32). 해방절 양의 희생은 예수 자신을 바치는 제물, 즉 그분의 온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되었으며, 그것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 절정에 다다랐다. 피는 생명이며(레위 17, 11) 피의 흐름은 생명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므로 예수의 피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 사이의 강력한 단결을 상징하며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수의 피의 계약은 생명의 계약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사이에 계시는 그분의 현존을 계속 축하함으로써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현존하심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드셨던 마지막 식사를 그들이 상기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함께 나눌 때는 언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재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재출현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그분과의 일치와 서로간의 일치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기념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며, 그분의 생명처럼 그들의 생명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질 것이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시오.” 조각난 빵과 부어진 포도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고통의 치료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앞으로 이룩될 존재로서의 약속을 받는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기도 안내 : 식탁에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과 그분이 겪으시는 고통 속에서 함께 머무름 때 나도 슬퍼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방 안을 둘러보고 그 방이 큰지 작은지, 밝은지 어두운지, 따뜻한지 서늘한지에 주의한다.

식탁과 식탁보, 잔들과 접시들을 본다.

식탁에 기대어 있는 제자들을 관찰하되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기대에 차있는지 또는 슬퍼하는지 그들 각자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본다.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되 특히 그들의 말에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혹은 친절이, 비탄이, 두려움이, 거짓이 깃들어 있는지에 주의한다.

예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나는 그에게 나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분의 표정을, 그분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본다. 그분의 얼굴을 관상하도록 한다. 그분의 얼굴을 들여다 볼 때의 느낌들을 각별히 알아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그분이 제자들을 이끌고 해방절 예식을 진행시키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분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제자들과 나누어 잡수시며 그분을 기

넘하여 이 예를 행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그 말씀을 듣는다. 나는 나의 느낌들, 예를 들어 경외심, 혼란, 축복 그리고 이 예식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 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한 느낌 등에 주의한다.

나는 예수께 “오늘 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라고 여쭙는다. 나의 내면에서 예수의 응답을 들으며 조용히 있다.

+마침기도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을, 그리고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그리스도의 생활방식을 따르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한다. 만약 그것이 그 누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가난과 개인적인 굴욕을 그리스도처럼 견디어 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성모송을 바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192쪽)을 기도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바치며 우리의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간다. 다시 똑같은 청원을 드린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나의 느낌들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기도중에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다섯째 날

비밀 장소 ; 거룩한 장소

요한 17, 1-26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을 다 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 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해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애정깊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계셨으며

제가 막 죽으려고 하는 지금도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선하심이 저의 생애에서 그리고 저의 죽음에서 드러나도록 간구합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저의 죽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작이,

당신과의 사랑으로, 독특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친근하고 자비로운 하느님

이제 그들을 떠나려는 지금 저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심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소서. 그들을 위로하소서.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 하느님,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미래의 하느님, 희망의 하느님
저는 이미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창조물들을 당신 앞에 놓아드립니다.
저는 아직 품어지지 않은 꿈들을,
기대는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들을 찬양합니다.
저는 완전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은 제게 주셨습니다.
믿음 깊은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될 비밀스런 장소를,
거룩한 공간을 발견한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빛나시는 당신의 모습을…….

기도 안내 : 예수와 정신과 마음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보다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여 그분께서 수난에 드실 때 그분의 정신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묵상 독서 : 27쪽)

기도하시는 예수를 상상한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그분의 정신과 마음으로 들어가 본다.

그분의 사랑과 근심, 그분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음미한다.

요한 복음 17장 1-26절을 천천히 읽는다.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내가 체험했던 범위 안에서 공명되도록 주기적으로 멈춘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한다.

나의 응답이 주는 느낌과 감사, 경외심, 놀라움을 알아챈다.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반복한다.

가슴으로 그리스도께 이야기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 기도를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여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 깊이 사랑하여 더욱 가깝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반복기도: 28쪽)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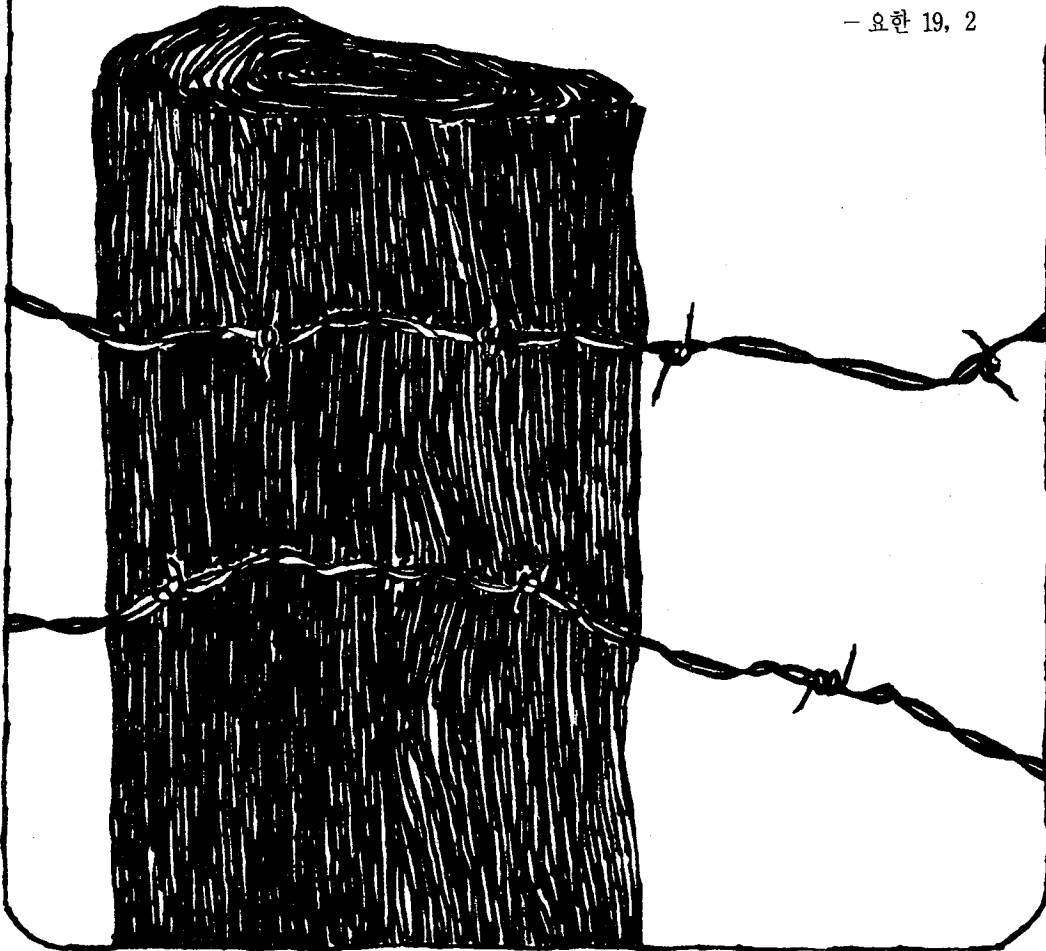
+기도 후 반성

이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 ㄴ ㄷ

예수의 머리에 씌었다.....
ㅁ

— 요한 19, 2



셋째 주, 첫째 날

어두움 밖에서

마르코 14, 32-42

그들은 게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는 세번째 다녀 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아버지, 저는 당신께로 다가갑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에겐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다시 소개해야 합니까?
 아버지, 당신께서는 분명 저를 알아보시지요?
 당신께서는 항상 제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때로는 무지개를, 때로는 갈가마귀를,
 때로는 천둥 번개를 보내시어
 언제나 제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괴로움에 빠지셨을 때 드리셨던 기도도 아마 이와 같이 번민에 찬 기도였을 것이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대인들의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인 Kaddish를 통해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과 포기의 체험을 레오나드 번슈타인은 시적이며 또한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온 생애에 걸쳐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게세마니 동산에서 단순히 자신을 알아달라고 울부짖고 계실 수 있을까?

하느님과 매우 가깝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음을 자신의 생애와 모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저버림을 받았다고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겪으셨던 공포와 고통, 혼돈, 소외감, 그리고 격심한 불안감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간의 고독감과 두려움의 구렁텅이를 나타낼 표현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알맞게도 이와 같이 깊고 격심한 고통이 영웅과 새로운 그 무엇을 탄생시킨다. 우리는 단지 예수의 고통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마르코의 성실성과 사랑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신 받아들이신 그리고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신 이와 같이 매우 깊은 인간적인 체험을 표현하려고 애쓴 오랫동안의 노력은 사람들의 믿음을 형성시켜 주었으며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왔다.

동산으로 가시려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도시를 지나치시던 예수의 가슴 속에서 일고 있던 기도는 무(無)로 밀쳐내어진 사람의 기도, 바로 그것이었다. 이 공허가 주는 쓸쓸함 속에서 예수께서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씨름을 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죽음을 마주하신 예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죄악, 즉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되는 일과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예수의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결속감은 그분으로 하여금 완전히 마음을 열게 하였고 또한 상처받기 쉽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짓누르는 죄악의 무게를 지시게 된 것이다(이사 53, 10). 오직 하느님과 가장 가까우셨던 예수만이 죄악으로 인한 터무니없는 비극과 공포를 완전히 납득하실 수 있다. 사랑으로 압도되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손실을 너무도 잘 깨닫고 계셨으므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손실이 가져올 고독과 버림받은 느낌을 그분은 말 그대로 체험하셨던 것이다(이사 53, 4). 짓눌리고 무력해지신 예수께서는 거의 절망에 빠져 “아버지”란 한마디를 어두운 허공에 대고 외치신 것이다.

천국으로부터 이 죄악으로 물든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예수께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궁지에 몰리시어 보호를 구하신 것이다.

“아버지”—깨닫지 못할 죄악의 어두움을 향해 울리는 최초의 외침

“아버지”—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응답 없는 간청

“아버지”—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내어 맡기고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항복하기에 앞선 절망적인 마지막 외침.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신 예수의 포기는 그분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과는 매우 강한 대조를 이룬다. 예수께서는 감히 어두움으로 들어가셨지만, 제자들은 밤새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받아들이심으로써 제자들의 거부도 용서를 받은 것이다(이사 53, 11).

예수께서 완전히 포기하심으로써 예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완성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절대적인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넘겨지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하느님의 힘으로 가득 차시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배반했던 유다를 마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일어 나시오, 잡시다.”

기도 안내: 동산으로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그리스도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분과 함께 느끼며, 그분의 번민을 함께 나누고, 저를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물까지도 흘릴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 방법(관상: 24쪽)

예수님과 동행해서, 최후의 만찬을 들었던 방을 떠난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서는 도시를 걸어서 통과한다. 예수께서 동산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실 때 나도 그분 곁에서 걸어간다. 우리의 짧은 여정의 일부인 주변의 풍경, 즉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밤공기가 얼마나 찬지 혹은 따뜻한지, 그리고 바람의 방향, 밤의 소리와 내음들을 아주 자세하게 상상해 본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예수님을 각별히 주목하되, 그분의 얼굴 표정과 몸가짐 그리고 그 표정과 몸가짐이 그분의 마음가짐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주목한다.

홀로 기도하시려고 자리를 뜨시는 예수를 본다. 예수님의 짙어가는 고통을 관상하면서 그분을 그렇게도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는 사랑의 깊이에 대해 숙고해 본다.

만약 나의 사랑하는 친구, 배우자, 혹은 자녀 중 그 누군가가 중한 죄를 저질러 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나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 본다.

그들의 고통, 수치와 절망, 절대적인 고립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 나의 아픔이 얼마나 뼈저릴 것이며, 나는 얼마나 무력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나의 기도는 얼마나 절망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사랑할 때는 상처받기 쉬운 나 자신의 나약함을 고려해 보니, 예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온 세계를 포용하려고 하셨을 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죄와 비난과 따돌림으로 괴로움을 겪으셔야 했던 아픔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게 하는가를 그분께 이야기한다.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온 세계를, 것처럼 전적으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예수께서,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분과 함께 기도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느낌과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둘째 날

아빠-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오 6, 9-13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해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굶주림의 어두운 뒤섞임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혼돈의 자궁인 동산에서
탄생-번개와 사랑 속에서-포기!

한 순간, 한 시절

매 순간, 모든 시간의 투명한 잔.

지구는 창조주를 맞으려고 활처럼 휘고

극과 극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르며

모든 만물이 생겨나며 한 군데로 모여든다.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은 기도한다, 주의 기도를.

주의 기도는 예수께서 자신의 온 생애에 걸쳐 생활화하신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하셨던 하루 일과의 매 순간이, 관상으로 보내신 매 시간이, 스스로 하느님께로 향했던 매 순간이 이와 같이 심오한 찬미와 간구의 기도를 이룬 것 같다. 게쉴마니 동산에서 가장 큰 시험에 드셨을 때 예수의 가슴에서 일어난 말들이 주의 기도에 반향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칭함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남녀와 항상 결속되어 계심을 인정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로마 8, 14-15).

이 기도는 ‘여기, 지금, 그리고 곧’과 같은 절박감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 기도를 빈번하고 분별 없이 되풀이함으로써 그 긴급성을 약간은 퇴색하게 해 놓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잃고 말았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바로 시간과 장소, 즉 여기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것, 하지만 언제나 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석처럼 모든 인간의 가슴을 채우며 또한 끌어당기는 신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나라가 이 지구 역사상에 현실화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다. 예수

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아버지, 어머니, 창조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형성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신을 바쳐 개인적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신다.

계세마니 동산의 예수처럼, 우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현존을 인지하는 가운데 기대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여 줄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양식과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은 매일의 생계를 위한 빵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성체를 구하고 받아 모시며, 그것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주며 최후의 잔치를 예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과 화해 속에서 맺어진 공동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으며 또한 그것을 전달한다.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사업에 참여한다.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는 천계의 충돌로 얻어지는 죄악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활화하여 자기 포기를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

기도 안내 : 우리 아버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예수께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기도 방법(묵상 독서 : 27쪽)

예수님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간다. 그분 곁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바친다.

‘아버지’란 단어로 시작해서, 그것들이 내게 무언가를 말해 주며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기도중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조용히 되풀이 한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진행한다.

만약 어떤 단어나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이 보여주는 방향이나 또는 위안을 온전히 흡수하면서 공명감에 젖어 머무른다.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나의 가슴이 단순히, 마음을 터놓고 예수께 말하도록 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셋째 날

입맞춤

마태오 26, 47-56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다.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일러 두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하시고는 무리를 둘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해설

어둠 속에서의 입맞춤이 포기와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켰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는 생명이 되었다(창세 2, 7).

게세마니 동산에서는, 입맞춤의 숨결이 포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포기로 하여 사랑이

넘친 예수의 성령이 온 세계로 놓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느님께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 맡기심으로써 모든 역사가,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태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하느님의 창조적인 성령이 혼돈 위를 운행하셨던 것이다(창세 1, 2). 이제 하느님의 창조적인 성령이 어둠 속에서, 인간의 죄악과 배신으로 인한 괴로움과 혼돈 속에서 현존하시며 활동하신다.

예수께서 이 입맞춤을 한 것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예수 자신께서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던 제자, 그분께서 함께 생활하셨던 친구였던 것이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만이 오직 그분을 붙잡고 껴안으며, 그분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권능과 자격이 있었다.

그는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이었다. 실제로 유다와 그의 동기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필시 보증할 수 없는 사악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 단테는 유다를 지옥의 가장 낮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 단테는 배반자들인 부루투스 그리고 카시우스와 함께 유다를, 사탄의 여러 개의 입들 중 그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신곡, 지옥편 34, 60).

다른 사람들은, 유다를 광신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에게 실망을 느끼고 그분께 행동 개시를 하도록 강요하려는 그릇된 계산에서 적에게 협조하였던 거라고, 조금은 자비심을 갖고 평하고 있다.

더욱 심오한 진실은 유다를 악마의 화신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그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그의 책임을 용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기엔 너무도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유다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유다의 성격과 행동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어두움에 살그머니 접근하는 악과 배신의 잠재력을 반영해 준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배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게 해준다. 그것을 성찰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리 자신을 배신하고, 또한 서로를 배신하는지 더 잘 깨닫도록 해준다.

유다의 배신이 그날 밤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험하신 유일한 배신은 아니었다.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을 부정하였으며 저버렸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해 부족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된 예수의 실망은 얼마나 컸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바치게 될 운명을 깨닫지 못했으며, 그분의 거역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명을 지원해 드리는 데 실패한 것이다(이사 50, 5).

예수께서는 호된 시련을 철저히 혼자서 맞이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일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나 행동하시는 데 있어서 운명론자적이거나 금욕주의자적이지도 않으셨으며 또한 주저함도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느님을 알고 계셨으며 자신의 운명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정신을 형성시켜준 그분의 예언에 굳건히 기초를 두고 계셨으며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가슴을 지탱해 주었다.

동산의 어둠 속에서 유다의 입맞춤은, 이미 준비가 된 예수를 찾아낸다.

기도 안내 : 배신의 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 때 슬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도록 하느님께 간구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기도 방법(관상 : 24쪽)

게세마니 동산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본다. 동산에 갇든 어둠에 주목한다. 밤의 내음과 소리들을 깨닫는다.

동산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께서 문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들의 표정을 감지한다.

가까이 다가오는 무리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다가옴에 따라 밝아져 오는 햇불의 빛을 본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이 들고 있는 거친 무기들이 보인다.

무리의 앞에 있는 유다가 보인다. 그가 예수께 다가가 입을 맞추는 것을 바라본다.

예수와 유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주의깊게 듣는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지 깨닫는다.

예수를 체포하려고 군인들 몇 명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본다. 뒤따른 혼란 속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관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리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 그 제자를 나무라시는 소리가 들린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얼굴 표정과 어조에 특별히 주의한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예수께서 붙잡혀 끌려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후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신가를 깨닫는다.

제자들과 함께 나는 어떻게 예수를 배신했던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함을 그분께 이야기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이 기도중에 떠오른 느낌과 새로운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루가 22, 54-65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사제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다. 그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다가 마당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불을 피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들여다 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 말을 부인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하였다. 얼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하고 잡아 떼었다. 그 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오. 이 사람도 갈릴래아 사람이 아니오?”하며 몰아 세웠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며 끝내 부인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 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부었다.

해설

예루살렘은 자고 있다. 칠혹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 증오와 불합리와 두려움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도시가 지니고 있는 거짓된 따뜻함에 불을 당기며,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 예수께서 끌려가신 곳은 바로 대사제관의 집, 적의 영토였다. 대제관들과 원로들은

불법적으로 임시 법정을 열어 예수를 심문한 후에, 다음 날 아침 그분을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판결을 내릴 때까지 밤새 지키도록 병사들에게 넘겨 주었다.

바깥 마당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다. 그 불은 따뜻하고 밝아서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둘러앉아 있는 모닥불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그 분위기는 오히려 비속하고 흥분으로 들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재의 수요일 전의 무절제한 마르디 그라(Mardi Gras, 사육제의 마지막 날: 역자 주)밤이었다. 감시자들은 야만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에게 모욕을 주고 욕설을 퍼부으며 지겨운 농지거리를 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권력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예언자이시며, 모든 인간의 영혼으로 파고드는 사랑을 갖고 바라보시던 예수께서 이제 눈이 가리워져 “누군지 알아 맞춰봐”하는 치욕스러운 놀이에 이끌려드신 것이다.

모닥불 주변을 도는 무리들 중에 그 사랑의 눈길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예수의 신뢰받는 제자이며 가까운 친구였던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자기가 여기에서 가장 큰 시험을 곧 겪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곳까지 예수를 따라왔다. 죽음에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단언하는 열정을 갖고 있던 베드로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루가 22, 33). 사실상, 바로 이 자신만만한 용기가 그를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 나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실패하였다.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분의 충실한 동지가 되었던 삼 년, 고투와 성장의 삼 년이 지난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찬 베드로는 마음이 나약해져서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한 번 뿐만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이다. 그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였으며, 또한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도 부정하였다. 그의 배신은 무정한 거부였으나, 이 후에 그것은 그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 때에 주께서는 몸을 돌리시고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베드로는 예수와 얼굴에서 분노가 아닌, 비탄의 표정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슬프게 울었다.”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의 가슴은 비통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베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기도와 약속에 대한 추억뿐이었다(루가 22, 62).

밤은 길었다. 마음이 정화되고 용서받은 베드로는 밖에서 울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당 한가운데 스러져가는 모닥불 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치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루가 12, 49-50).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기도 안내 : 예수의 눈길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와 함께 머물 때 슬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도록 하느님께 간구한다.

+기도 방법(관상 : 24쪽)

안나스의 집 마당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당 한가운데 있는

모닥불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온다. 그 곳에 있는 보초들과 하인들의 존재를 깨닫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대화를 듣는다. 그 분위기를 채우고 있는 느낌에 특별히 주의한다.

한쪽 구석에 죄인으로 잡혀서 보초들의 감시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보초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조롱을 시작할 때 그분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아차린다.

베드로에게 주의를 돌린다. 이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고 하인들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지켜본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부인할 때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며 지켜본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리시는 것을 본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천천히 잘 관찰하도록 한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몸을 돌리실 때 그분의 눈길을 받도록 한다.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그분을 부인한 데 대한 슬픔과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

주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다섯째 날

묵이신 예수

루가 22, 66~23, 1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들을 비롯하여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법정을 열고 예수를 끌어내어 심문을 시작하였다. “자, 말해 보아라.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는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 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그러면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하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이제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온 의회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해설

포대기에 싸여 있던 베들레헴의 어린아기가 산헤드린 앞에 묶여 있는 죄수가 되었다. 평온한 베들레헴의 밤의 정적 속에서 외양간으로 쓰이던 동굴에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가까운 들판에서 목동들이 왔다. 믿음으로 가득 찬 그들은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아기의 탄생을 보러 왔다. 어머니와 아기를 보고 기쁨에 넘친 목동들은 이 아기가 모든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그들의 희망인 ‘주 그리스도’의 현신이라고 단언했다.

포대기에 싸여 있던 아기가 죄수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서는 대제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회의를 열었다. 법적인 형식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칠십 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반원으로 모여 앉았다.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는 이 회의에서 그들의 적의를 드러낼 공통의 적을 발견한 것이다..

“말해 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들이 원한을 품고 그들의 희생자에게 죄목을 씌울 때 그들이 경멸과 편견을 갖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했다.

마침내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속된 구세주라고 단언하는 사람에 대해 염려하게 된 것이다. 그 존재가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에 위협이 된다고 인지한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느님의 천사에 의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공언받은 사람이(루가 1, 36), 하느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히신 사람(루가 3, 22)이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분을 심문하면서 그분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말하였습니다.”

심판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공식적인 유대주의가 예수의 현존 안에서 성취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현실과 맞부딪친 것이다. 권력에 눈이 먼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범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시며 하느님을 신뢰하고 계셨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그분은 물론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은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시다.

산헤드린에게 하신 예수의 대답은 그들이 한 질문의 차원을 훨씬 넘어 선 것이다. 그분의 고통은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분의 성령은 항상 변화를 가져온다.

묶여 있던 죄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원천이 되었다!

기도 안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때 슬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도록 하느님께 간구한다.

+기도 방법(만트라: 26쪽)

긴장을 풀고 나의 내면의 중심으로 깊이 침잠한다. 나 자신이 가장 구속받고 부자유하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내면에서 나선형으로 내려가 본다.

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유의 결핍을 깨달으며 만트라를 하는 방법으로 기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자비로운 사랑으로 넘치는 예수님의 성령에 머무르는 것으로 기도를 마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여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구하는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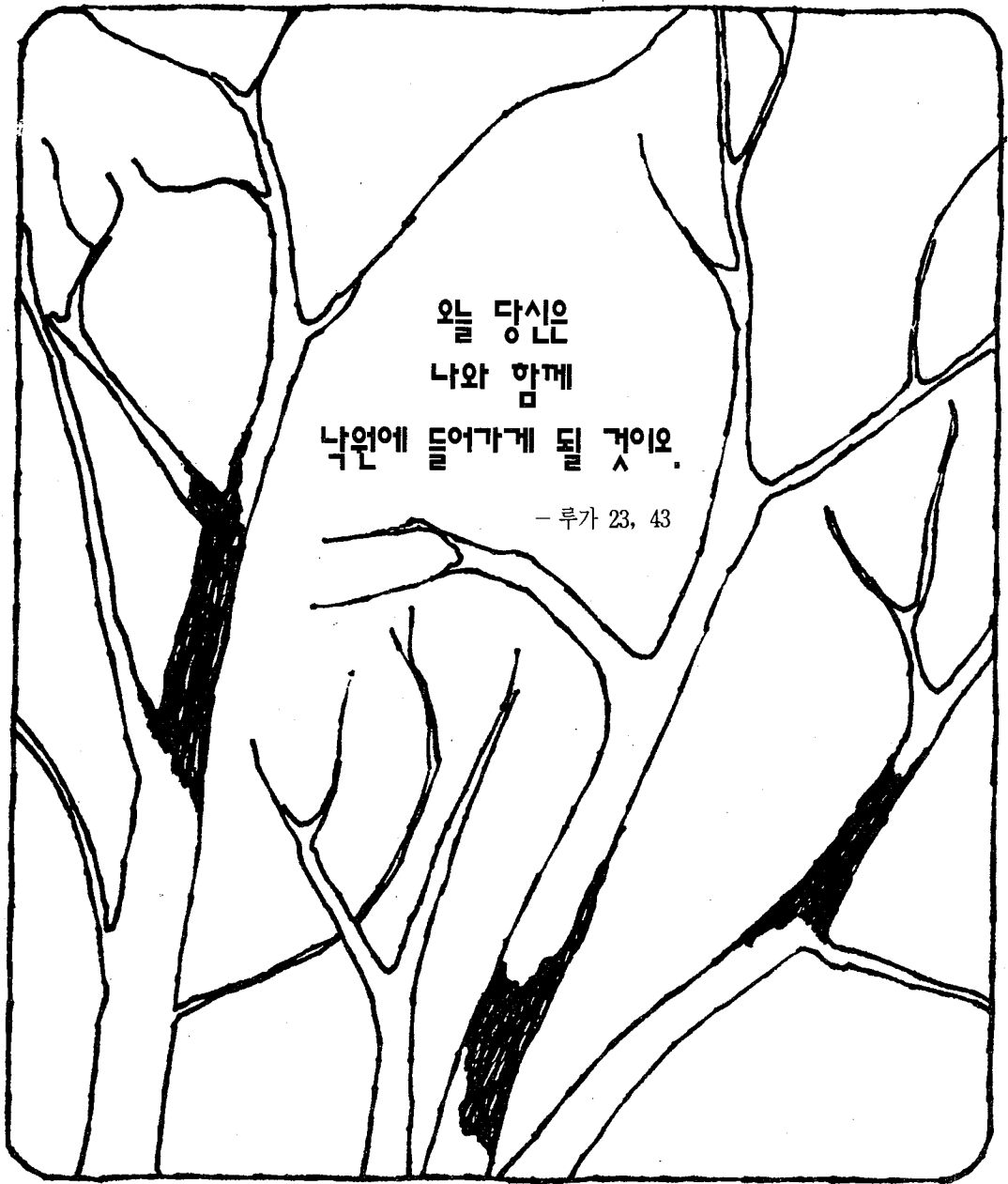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때 슬픔에 젖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도록 하느님께 간구한다.

+기도 방법 : 28쪽의 반복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혹은 깨달음을 얻었던, 혹은 혼동을 체험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기도 후 반성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 루가 23, 43

마태오 27, 11-25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 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하고 당부하였다. 그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리는 말이나?”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빠요”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말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해설

“난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마치 샘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처럼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두 귀가 크게 열린 것처럼, 혹은 시퍼런 물 위에서 샘물이 용솟음친 것처럼,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라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남편의 이름이 이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었는지, 이 일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이 어떤 불가사의하고 불길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 같이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게르트루트 폰 레 포트트는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가 미래의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기도하고 있는 꿈을 꾸고 깨어나서 그녀에게 갑자기 엄습한 공포와 두려움을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위와 같이 재창조했다.

오랜 세월이 걸쳐 모든 교회에서 바치는,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그녀의 남편의 죄를 상기시키는 기도소리를 들으며 클라우디아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꿈을 꾸고 불길한 예감이 든 그녀는 빌라도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급한 전갈을 보냈다: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녀의 전갈이 왔다.

빌라도의 심문은 끝났다,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현명하게 대답을 회피하셨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애매한 대답으로 자신이 구세주임을 긍정하셨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예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며 산헤드린의 결투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고자 했으며, 클라우디아의 경고로 빌라도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제관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예수의 침묵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될 사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침묵은 예수를 놓아 주려고 노력하는 빌라도를 난처하게 하여, 절망적이 된 빌라도는 해방절을 지내려고 와서 도시를 가득 채운 군중들에게로 향했던 것이다.

불신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태도가 만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인격에 호소했다. 그들이 예수를 선택하리라고 확신했던 빌라도는 명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관례에 호소했던 것이다. 그는 군중에게 나자렛의 예수와 악명 높았던 죄수인 바라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대제관들과 원로들에게 충동당한 그들은 빌라도를 당황케 하며 바라빠를 놓아 주라고 소리질렀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라고 믿는 자신의 믿음과 바라빠를 택한 군중의 분별 없는 선택 사이에 휘말려든 것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군중의 적개심은 새롭게 가열되었다. 그들이 예수를 가장 잔인한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 형에 처하라고 격정적으로 요구할 때 그들의 격분한 기세는 폭동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무리의 압력에 굴복하여 빌라도는 단순한 정의보다는 거짓 평화를 선택했다. 다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혁신적인 예수의 메시지와 방법에 위협을 느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 정치적인 사리 추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물로 손을 씻음으로써 죄를 씻어 버리려고 시도했던 빌라도에게서 악몽같은 마녀 맥베쓰 부인의 성격을 본다.

예수께서 유죄라고 교만하게 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섭고 끈질긴 비극을 본다.

능욕당하고 거부당한 예수의 죽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다. “그는 마치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이사 53, 7).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기도 안내 : 사도신경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독서 : 27쪽)

오랫동안에 걸쳐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 온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주교좌 대성당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대성가대와 목소리를 합하여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기도한다.

“우리 주 천주를 믿으며……”로 시작해서 기도중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무언가를 말해 주며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그 단어들을 조용히 되풀이 한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계속한다. 만약 어떤 단어나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이 보여주는 방향이나 또는 위안을 온전히 흡수하면서 공명감에 젖어 머무른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나의 가슴이 단순히, 마음을 터놓고 예수께 말하도록 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둘째 날

헤로데 앞에서 침묵을 지키신 예수

루가 23, 6-12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라고 묻고 예수가 헤로데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것을 알고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로데에게 예수를 넘겨 주었다. 헤로데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 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번 만나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한 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것 저것 캐어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거기 있다가 예수를 악랄하게 고발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모욕을 준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다. 헤로데와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반목하고 지냈지만 바로 그 날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해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분은 혼자셨다. 예수 수난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은 자신의 ‘시간’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더 고립되었으며 침묵하셨다.

예수께서는 또 다시 고발과 질문을 받으셨다.

그분은 침묵하셨다. 그분은 무죄이셨다. 아무런 잘못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죄 없다고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 고발자에게 답변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의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리고 이 순간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를 누설하는 것이 된다.

이 순간은 포기과 신뢰를 요구한다. 완전한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그분 삶의 성실성과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우선하신다는 사실을 모독한다. 침묵만이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있으셨으며 침착하셨다. 침묵은 그분께서 헤로데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비난이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헤로데에게 보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또는 헤로데에게 아첨하기 위해서였는지, 또는 단순히 예수를 남에게 떠맡기기 위해서였던지 간에, 헤로데는 오로지 호기심과 조롱할 생각으로 가득했다. 예수를 심각하게 대하기를 거부한 헤로데는 그 사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헤로데는 예수에 대한 고발을 증명하지도 반증하지도 못한 채, 자기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그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풍자적으로, 그 옷은 모욕과 죄를 나타내 주기 보다는 예수의 무죄를 설득력 있게 나타내 주는 징표이다. 헤로데나 빌라도 중 그 누구도 예수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석방해 주지도 못했다.

상호간의 무력함 속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유대를 맺었다.

예수의 수난은 계속 펼쳐진다. 그분은 점차적으로 더욱 고립되시고 더욱 침묵을 지킨다. 예수께서 자신의 마지막 포기에 가까워지실수록, 그분의 침묵은 더욱더 깊이 하느님의 침묵과 만나게 된다.

기도 안내 : 침묵에 들어가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헤로데 앞에 끌려 나오신 예수를 본다. 그들이 만나게 된 궁전의 방을 자세히 상상한다. 예수의 복장과 태도가 헤로데와 그의 주위 환경에 비추어 얼마나 심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챈다.

헤로데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질문할 때 헤로데를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 표정에 주목한다. 질문하는 헤로데의 목소리, 그의 분노, 호기심, 그리고 적의에 주의한다.

거기 와 있는 대제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악랄한 고발을 듣는다.

심문과 고발을 당하시는 예수의 얼굴을 관찰한다.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를 본다.

매우 고요한 방 안의 정적 속으로 들어가듯이 예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나 자신들이 침묵에 내어 맡기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가능한 한 이 침묵에 대한 체험이 나의 오관을 통해 표현되도록 한다.

예수의 침묵의 분위기는 어떤 색조를 띠고 있는가?

이 침묵은 어떤 '소리' 혹은..... 향기를 갖고 있는가?

이 침묵의 맛은, 느낌은 어떠한가?

예수의 침묵이 나의 존재 전체를 채우도록 한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머문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셋째 날

심판받는 진리

요한 18, 33-38 ; 19, 1-12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나?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나?”하고 반문하셨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 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 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튼 네가 왕이나?”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 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 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하고 말하였다.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또 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 자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하고 대꾸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나?”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인가? 나에게서는 너를 놓아 줄 수도 있고 십자가 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이 말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 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만일 그 자를 놓아 준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르의 적이 아닙니까?”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해설

왕에게 왕관이 씌워졌다! 왕에게 영광스런 곤룡포가 입혀졌다. 신하들은 왕에게 경의와 찬미를 바친다!

그의 왕관은 가시나무를 꼬아 만든 피문은 왕관이며, 그의 머릿살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의 의복은 보통 군인들이 입는 겂옷으로, 낡고 색바랜 옷이다. 그가 받는 찬미는 경멸이 섞여 있으며 그 뒤에는 뺨맞기가 뒤따른다.

풍자적이게도, 이 저속한 재판식 흉내내기는 심오한 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왕에게 왕관이 씌워진 것이다!

병사들의 괴상한 흉내내기는 유대인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빌라도가 타협하려는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밝혀 준 것이다. 병사들은 야비하고 우둔한 그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이 야유조의 재판식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판 전체는 빌라도가 관장한 웃음거리 재판이다. 예수를 재판하는 동안, 빌라도의 지도력은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이른다. 몇 년에 걸쳐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을 무자비하게 대접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빌라도의 총독으로서의 지위는 유대인들이 그가 다음에 저지를 잘못을 로마에 보고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으로 해서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

예수의 명확함과 힘을 마주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진실을 상실했으며 우유부단에 빠져든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빌라도를 혼동시킨다면, 예수의 침묵은 그를 압도한다. 빌라도는 머뭇거리고 있다!

예수를 단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분을 석방하지도 못하는 빌라도는 뒤로 물러나서 악에게 지고만 것이다.

빌라도는 나약함의 딜레마 속에서 자기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다.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진실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오랫동안의 무감각으로 인해 무디어지고 무기력해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에 양도하고 만다.

예수를 넘겨줌으로써 빌라도는 진리를 거부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진리도 부인한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의 정의에 기본이 되는 진리의 법칙을 배반한다.

빌라도는 “나는…… 진리다”(요한 14, 6)라고 말한 분을 거부한 것이다.

이 재판의 웃음거리는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습니다”(요한 19, 6. 15)라고 왕임을 선언하는 그의 잔인한 흉내내기 시작으로 끝을 맺는다.

무지함 속에서, 다시 한 번 진리가 밝혀진 것이다.

오합지졸 앞에서 힘없이 서 계신, 채찍질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인간 예수가 바로 왕이신 것이다. 그분의 진리와 진리에 대한 그분의 증거는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다.

왕국의 권능은 인간의 한계와 죄를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진리의 힘에서 볼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천 년 전에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써붙이게 한 말은 오늘날도 모든 인류 역사 중심에 다음과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유대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요한 19, 20).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기도 안내 : 조롱받고 거부당하신 예수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교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성서 대목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

성서 대목에 나오는 경비병이나 군중 속의 누군가를 택해서 그 사람이 되어 본다.

예루살렘 도시를, 해방절을 지내려고 와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군중들로 가득 찬 거리를 그려 본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고 있는 총독 관저 근처에 모여 있는 군중을 본다. 그 건물을 상상해 본다. 건축 양식, 포석이 깔린 테라스, 아치형 문들을 자세히 상상한다.

빌라도를 응시한다. 지위를 상징해 주는 그의 복장에 주목한다. 그의 외적인 태도가 그의 내적인 마음가짐을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의식하고, 그가 예수께 질문할 때 귀담아 들으며 심문하는 그의 말씨를 의식한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그분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분의 침묵과 대답이 진리를 어떻게 깊이 드러내는지 알아챈다.

대화에 뒤이어 기도를 계속한다. 사람들이 바라빠를 놓아 주라고 소리지를 때, 예수
의 얼굴 표정에 주목한다.

채찍질을 하려고 예수를 데려갈 때, 그분과 함께 가서 경비병들이 그분에게 가시왕관을
씌우며 조롱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예수의 아픔과 굴욕을 계속해서 의식한다.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 사람들 앞에 세울 때 나도 예수를 따라간다.

빌라도와 예수 사이에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빌라도의 성품과 예수를 거부해야만 하는
비애감 사이에서 그가 갈팡질팡하는 것을 감지한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예수를
그들에게 내주는 것을 본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머문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넷째 날

성 금요일의 여정

요한 19, 13-22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 리토스트로토스라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자기 재판관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가빠타라고 하는데 “돌 깔아 놓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 날은 과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시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둘러 보며 “자, 너희의 왕이 있다”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오!”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 형에 처하란 말이나?”하고 말하자 대사제들은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는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밖을 나가 히브리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써어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말과 라틴말과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 보았다. 유대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야 합니다”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하고 거절하였다.

해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예루살렘의 비좁은 거리를 따라간다.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완전한 침묵을 지키며 걸어간다.

이 날은 성 금요일이다.

성 금요일에는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 거리를 따라 상상의 여행을 한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건 교회 안의 통로에서건,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과 매혹의 신비(mysterium tremendum, mysterium fascinans)인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모습은 어쩌나 강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지, 그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펼쳐지고 있는 연극 속에서 밀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안다.

이 극은 십자가의 길이다.

‘성’ 금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앞으로 오는 날이다. 그들은 예수의 고통 안에서 자신들이 겪는 아픔의 의미와 그들 주변의 세계가 지닌 의미를 발견하려는 깊은 갈망을 갖고 온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예수와 함께 갈바리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느낀다. 마치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였던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쓸 나무를 지고 갔듯이(창세 22, 1-8), 예수께서도 자신이 못박히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사람들은—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면서—기도 안에서 예수의 생애가 구체화시킨 약속과 오래된 예언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해방절,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구속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연중행사이다. 의미심장하게도, 예수께서는 해방절 속죄 양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똑같은 시각에 군중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1200년 전 첫 해방절에 희생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대문에 발라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는지를 상기한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포기에서 새로운 해방절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가신 예수의 길을 본다. 그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이사 53, 7).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응시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신 예수의 인내와 충실하심이야말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힘이란 것을 발견한다.

바로 성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은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II 고린 4, 8-11. 14).

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3쪽)

뒷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부터 갈바리 그리고 부활절 아침의 텅빈 무덤에까지 예수의 여로에 들어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려고……”(골로 1, 24) 나 자신의 아픔을,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께로 가져온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침묵 속에서 예수와 함께 머물거나 아니면 가슴으로부터 그분께 이야기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십자가의 ‘처’를 영적일기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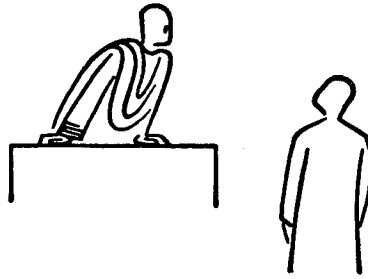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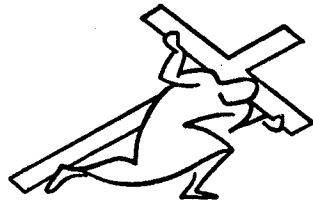
+ 십자가의 길

1.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
나 자신이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때를
기억한다.

2. 예수께 십자가가 주어질 때, 나의
생애에서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때를
상기한다.

3. 예수께서 첫번째로 넘어지실 때,
내가 처음으로 실패를, 나 자신의 한
계를 체험했던 때를 기억한다.

4. 성모께서 예수께 용기를 북돋워 주실
때, 내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도록
용기를 북돋워 준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기억
한다.



5.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졌을
때, 누가 내 어깨에서, 내 가슴으로부터
십자가를 들어올려 주었는지 생각해 본
다.

6.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아 드릴
때, 나의 생애에서 베로니카처럼 그들
자신이 거부당할지도 모를 위험에도 불
구하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준
사람들을 기억한다.

7. 예수께서 두번째로 넘어지실 때, 나
자신이 또 다시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
면서도 어떻게든 할 수 없이 무력하게
넘어졌던 때를 상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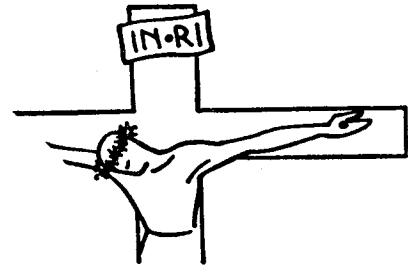
8.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를 위로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하려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9. 예수께서 세번째로 넘어지실 때, 나 자신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꼈던 때를 상기한다.

10. 예수께서 옷을 벗기우실 때,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매우 불쌍하게, 별거벗기운 것처럼 나약하게 느꼈던 체험을 기억한다.

1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12.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아무런 보답이 없이 보일지라도 남을 용서하며 조건없이 사랑하라는 내적인 부름을 느꼈던 상황들을 상기한다.



13. 성모께서 당신 아들의 시신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슬퍼해 준 사람들을 애정을 갖고 추억한다.

14.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뉘일 때, 나의 생애에서 무엇이 나를 가장 무덤에 묻힌 것처럼 느끼게 하며, 무엇에서 나는 깊이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지 생각해 본다.

15. 부활절날 아침에 텅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겪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리고 깊어지는 새로운 삶을 깨닫는다.



넷째 주, 다섯째 날

왕이며 사제이신 예수

요한 19, 23-24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술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겹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설

“그의 몸 안에 종족의 신앙정신이 살아 있다.”

이 말은 예수께도 분명히 적용된다. 왕이며 사제이신 예수께서는 그분 백성들의 삶, 즉 하느님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끔찍하게도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그분을 찬양하는 말인 동시에 비난하는 말이기도 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명패가 있으며, 그분의 발 밑에서는 혼술 없이 통으로 짠, 사제복 같이 생긴 그분의 옷을 차지할 사람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다.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놓이신 왕이며 사제이신 예수께서는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 혼돈과 질서, 창조주와 창조물,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육체와 정신을 일치시키신다.

상처를 입으신 예수께서는 상처입은 모든 것들을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시다. 예수의 고통은 모든 것들을 서로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는 도구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온 인류는 무기력한 어둠으로부터 밀치고 나와 예수 안에서 신성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늘이 땅과 결합하며 모두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진실로 축복받은 이 밤!”(부활 찬송가).

기도 안내 : 십자가 앞에서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과 만트라 : 24쪽과 26쪽)

십자가를 손에 들고 가까이 들여다본다. 내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을 본다. 못이 박혀 흉하게 벌어진 그분의 두 손을 바라보며 관상에 잠긴다. 그분의 양 어깨에 걸쳐 나있는 멍들을 본다.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이 씌워진 그분의 머리와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묶여진 그분의 두 발을 본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가 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옷이 벗기워진 수치심을 느낀다.

내 마음속에 떠오른 느낌에 주의하면서, 무력한 상태에 놓이신 예수와 함께 머문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왕이며 사제이신 예수께, 내 나뭇대로의 말로, 혹은 “왕이며 사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와 같은 짧은 기도를 통해서 가슴으로 대화를 나눈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여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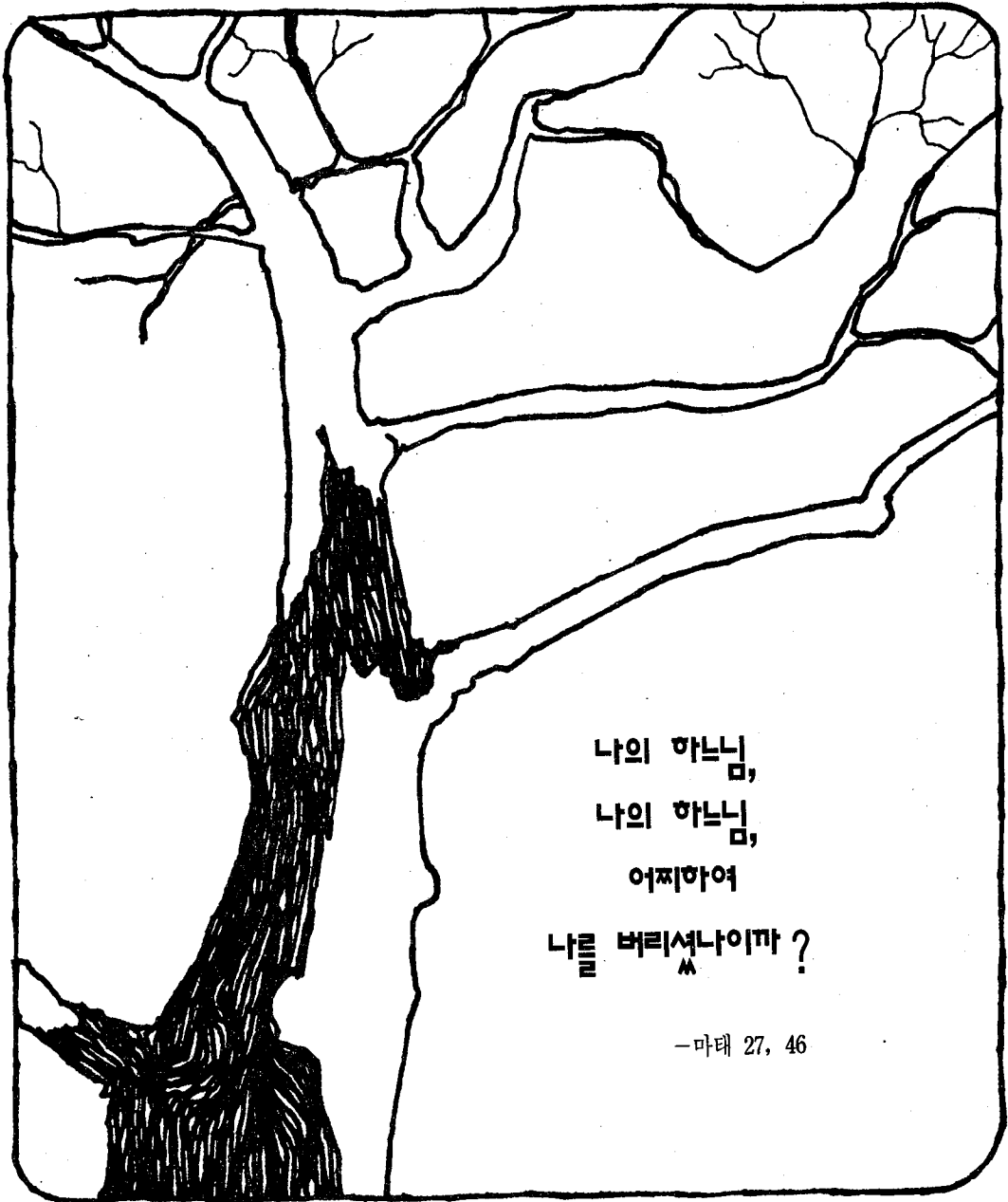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때 비탄에 젖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느님께 청한다.

+ 기도 방법 : 28쪽에 있는 반복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혹은 깨달음을 얻었던, 혹은 혼동을 체험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다시 듣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마태 27, 46

다섯째 주, 첫째 날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도전을 받으신 예수

루가 23, 39-43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나?”하고 꾸짖고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해설

옛 유대인들의 속담에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마치 온 세상이 자기의 것인 양 두 주먹을 꼭 쥐고 나온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치 한때 자기가 아끼던 것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두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예수의 양쪽 옆에서 십자가 형에 처해진 두 사람의 도적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 채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경멸조로 잠시 처형을 연기 받으려는 선택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용감히 변화하겠다는 선택을 한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들은 선택한다. 예수 앞에서, 한 도적은 그분께 도전하고, 다른 도적은 그분을 믿는다.

예수께서는 도전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결이 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도둑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본다.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도둑 편에 든다고 쉽게 단언한다. 그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기는 쉽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으며, 성실하며, 신뢰하며, 착한 일을 하려고 열망하고 있다.

음흉한 도적을 받아들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사실상 그는 흔히 숨겨져 있으며, 아주 변장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란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도적들, 즉 서로 반대되는 이 두 존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롭고 더욱 완전한 의식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 서로 모순되게 존재하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활기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역설적이게도—자유를 체험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방향이 정해지며 생명력으로 변화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적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본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합일, 즉 오른쪽과 왼쪽, 아래와 위의 일치를 나타낸다.

오직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화해가 가능하다. 한 사람의 도둑은 예수를 받아들였으며, 다른 도둑은 가엾게도 그분을 거부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이 거부하는 죄를 저지른 공포를 보는 것이다. 두 도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거부를 체험하신다.

예수를 응시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수난에 빠져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도둑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이 팽팽하게 대결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 내적인 수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악마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하지만 예수께 초점을 맞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대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부하는 도둑의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이 아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의 선한 도둑도 역시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 응답한 그의 용감한 “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온전히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응답을 우리 스스로 듣게 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준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난에 들어가려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상 그것에 압도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악한 면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망과 유혹에 굴복하게 될지도 모르며, 자신이 매우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만심의 유혹에 양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수난의 길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예수께 중심을 둔, 흐트러짐이 없는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예수의 수난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예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분을 받쳐준 힘이다.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예수로 하여금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도둑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느님께 기원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 34).

이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께 부탁드렸던 착한 도둑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오”라고 한없는 사랑으로 대답하신다.

예수께서는 그 도둑이 희망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 도둑과 우리에게 예수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지닌 훌륭한 주인이며, 그분의 십자가는 변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사랑의 힘을 뿜어내는 중추적인 만다라(centering mandala, 거룩한 곳에 부처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 역자 주)이다.

기도 안내 : 낙원에 대한 약속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십자가 형에 처해졌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내 주변의 분위기—그 날의 어두움, 군중들의 혼란, 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주의한다.

예수의 양쪽 곁에서 십자가 형에 처해질 다른 두 사람을 주목한다. 그들의 고통, 얼굴 표정, 그들의 말을 의식한다.

그들이 예수를 관찰하는 모습과 그들의 서로 반대되는 반응에 주목하며, 그들의 내적인 자세가 말과 억양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한다. 한 사람은 무시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직하며 신뢰하는 것에 주목한다.

예수께 보여진 이 반대되는 반응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나 자신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반성해 본다.

예수께서 착한 도둑의 겸손한 청에 응답하시는 것을 본다. 예수의 약속에 귀기울이며 그것이 나의 내면에 깊이 공명하도록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예수와 함께 머물며 그분께 마음으로부터 이야기한다.

+ 기도 후 반성

나의 내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비롯되는 긴장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영적 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둘째 날

어머니에서 여인으로

요한 19, 25-27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해설

‘어머니’에서 ‘여인’으로. 마리아는 자기를 한평생 ‘어머니’라고 부르던 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부르셨던 때가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신랑 신부가 난처해 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도록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했을 때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저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요한 2, 4)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어 신랑 신부의 곤란을 해결해 주셨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일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많은 훌륭한 기적들 중에서 첫번째의 기적이다. 그것은 예수의 새로운 시대가 예고하는 기쁨과 성취를 나타내는 강력한 징표와 약속이다.

갈바리 언덕에서, 이제 그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의 어머니를 ‘여인’으로 부르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지대한 품위를 갖고, 새로운 시대에 마리아가 하게 될 역할을 상징적으로 칭하셨고 그 역할을 확립시키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그녀의 신분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이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육체적인 마리아의 신분이, 마치 포도주로 변한 물처럼 변화된 것이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마리아는 최초의 여인인 이브처럼, 모든 살아 있는 자의 어머니이다(창세 3, 20). 새로운 창조 안에서, 그녀는 ‘새로운 이브’로 인정받는다.

이브는 자녀들을 고통 속에서 출산하였다(창세 3, 16). 마리아 역시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진통은 아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전적인 포기를 요구한다.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밑에 서 있다. 그녀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가 없다. 그녀는 그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곳에 서 있다!

믿음 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아들 곁에 머물러 있다. 이 순간, 그녀가 보여주는 확고 부동한 태도는, 그녀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어 예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때의 그 충실했던 태도를 명확히 상기시켜 준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 28).

그녀는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오느라고 고통을 겪었던 위대한 어머니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 아래에 사랑으로 서 있는 여인이다.

기도 안내 : 만트라-마리아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만트라 : 26쪽)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 예수의 고통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청한다.

+ 기도 방법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주변을 아주 자세히 상상한다. 예를 들어 시간, 공기가 따뜻한지 차가운지, 사람들-병사들, 신심 깊은 여인들, 바리사이파들, 단순한 구경꾼들-, 호기심, 의구심, 두려움, 동정심, 슬픔 등이 나타나 있는 그들의 얼굴 표정들에 주목한다.

마리아를 가까이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과 자세에 새겨져 있는 감정들에 주의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마리아께서 어떻게 온 정신을 예수에게 기울이시는지에 특별히 주목한다.

나 역시 예수를 바라본다. 그분의 팽팽하게 당겨진 몸의 근육들, 잔인하게 살을 파고 들어간 못들, 거치른 가시왕관 등을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특히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과 눈에 나타난 괴로움을 본다.

곧바로 내 눈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를 본다. “_____,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분이 마리아께,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딸을 보십시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린다.

마리아께서 여기 계시다. 그분의 예수에 대한 성실성과 믿음은 나의 예수에 대한 신앙심을 살찌우게 한다.

예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만트라 형식으로 기도한다.

_____,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딸을 보십시오.

마리아께서 여기 계시다. ‘네’라고 대답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신 마리아의 자세는 내 안에 새로운 창조와 희망이 깃들게 하도록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_____,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딸을 보십시오.

마리아께서 여기 계시다. 그분의 사랑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살찌운다.

_____,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딸을 보십시오.

마리아께서 여기 계시다. 내가 인간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내 안에 하느님의 변화시키시는 권능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준다.

_____,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딸을 보십시오.

마리아께서 여기 계시다. 기꺼이 십자가 밑에 서 계신 그분의 자세는 나로 하여금 그분 아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내 몫으로서 나의 인생의 특수한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도록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준다.

_____,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딸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내게 계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한, 그분의 말씀을 만트라로 사용하여 천천히 기도하는 자세로 되풀이 한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십자가 밑에 서 계신 여인인 예수의 어머니를 주신 은총에 대해 예수께 감사드린다.
성모송을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셋째 날

우리들 중의 한 사람

요한 19, 28-29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뱃 적서서 히숨 풀대에 꿰어 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 드렸다.

해설

“목마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비통한 한마디는 그분께서 인간이셨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예수께서 인간이심을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박히신 바로 이 때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분의 인간적인 호소를 들으며, 놀라웁게도 예수 역시 우리들 중의 한 사람임을,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내려오셨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실상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임무를 우리를 위해 수행하시도록 해준다.

그 임무는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임무이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요한 17, 21).

예수의 내적인 갈등과 우리 자신의 갈등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깊고 격렬한 갈망이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갈망은 모든 새로운 창조, 즉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살아 있는 실체를 향해서 위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피할 수 없이 이끄는 진화론적인 견인력이다.

십자가는 희망과 나타남의 상징이다. 예수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나약하고 병든 상태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준다. 고통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시켜 준다. 십자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투와 아픔을 겪는 속에서 생활화되어지는 창조주의 사랑의 작업을 나타내는 심오한 상징이다.

이 사랑의 작업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처럼, 기독교인들도 일치에 대한 갈등을 견뎌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일치는 십자가로부터 얻어지는 힘이다.

예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목마르다”라고 말한다.

“성령과 신부는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묵시 22, 17).

기도 안내 : 목마르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 구하는 은총

예수 수난 중에서 마음에 사무치는 부분, 즉 내적인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3쪽)

기도하는 자세로 요한 복음 19장 28-29절을 다시 읽는다. 그리스도의 갈등을 상상하며 그분의 호소를 듣는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나의 갈등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간다.

어린 시절에 나는 무엇을 갈구하였는가?

내 인생의 체험들이 나의 갈등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나는 나의 갈등의 체험이 어떤 것이기를 원하는가?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갈등에 대해서, 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

예수의 갈등을 관상하면서, 고통중에 계신 그분의 갈등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인생의 상황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예수께 말씀을 드리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머문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넷째 날

십자가-축매

마태오 27, 39-44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아,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해설

고통은 선과 악이 만나는 지점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사탄은 다시 한 번 자기의 사악한 존재를 드러낸다. 모욕과 조소는 그의 목소리이며, 그의 대변자는 군중이다.

예수께서 사막에서 유혹을 당하시는 동안(마태 4, 1-11), 악과 선, 어둠과 빛의 세력들이 서로 만난다. 예수의 이 고통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유혹을 당하신다: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예수에 반대하기로 작정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의 힘없음을 하나의 완전한 권능 상실로 간주한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께서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증거라고 교만하게 해석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신다면 그분을 믿겠다고 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다. 그분은 이기적인 자부심에 부푼 권력의 과시에 양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고통을 참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 속에서 굳건히 머무르신다.

이러한 획기적인 신뢰와 복종의 힘 속에서야말로 예수께서 참된 하느님의 아들임이 드러난다. 오직 그와 같은 끝없는 신뢰의 힘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데서 오는 격렬한 고통과 불명예를 견디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적인 한계에서 오는 굴욕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포기와 변화의 힘을 막고 있는 저항을 무너뜨리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이셨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은 그분이 신이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신뢰와 복종을 드러내 주는 징표인 예수의 역사적인 십자가는 하느님의 권능과 선이 이 세상으로 놓여나게 해주는 촉매작용을 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체험하는 고통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는 살아 있는 모범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겪는 고통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예수의 포기는, 우리의 고통도 그분의 고통처럼 모든 인류의 발전 과정의 일부분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예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통은 우리가 서로간에 그리고 하느님과도 사랑으로 부활의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준다. 악은 최종적인 발언권이 없는 것이다.

“기독교도는 그들에서 쓰러지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 속에서 오르라고 요청받는다.”

기도 안내: 그리스도의 가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의 수난의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겪으시는 슬픔과 번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청한다.

+ 기도 방법(관상: 24쪽)

예수의 수많은 고통들에 주목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분을 묵상한다. 예수께 퍼부어지는 조롱과 모함 소리가 들린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중심부인 예수의 가슴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조용한 가운데, 내 존재가 지닌 모든 에너지를 그분의 가슴에 농축시킨다.

마치 방에 들어가듯이 천천히 그분의 가슴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들어가면서 내 맘속에 떠오르는 영상들이나 느낌들을 깨닫는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굴욕을 견딜 수 있게 한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사고 예수께 청한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나누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가슴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마음을 연다.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의 가슴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분의 가슴에 모여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 나의 모든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 자녀들, 친구들, 부모들
-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다른 것들—국가의 지도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수들, 집 없는 사람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예수의 가슴을,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리는 사랑의 집중점으로 상상한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나와 온 세상을 채우려고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한다.

사랑의 에너지가 거대하게 확장되어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실 미래로 모든 창조물들을 움직여 가는 것을 본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예수께서 그분의 비전과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 나뉘대로 표현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다섯째 날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때 비탄에 젖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 청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28쪽)

기도를 위한 준비로 지난 주간에 적은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내가 깊이 감명받았던, 혹은 감명받지 못했던, 혹은 깨달음을 얻었던, 혹은 혼동을 체험했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처음에 성서의 대목에 접근하던 방법을 사용한다.
마음을 열고 그 대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여섯째 날

비탄의 울부짖음

마태오 27, 45-50

낮 열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싼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해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율법에 저주받고 아무런 지지자도 없는 실패자이시다(갈라 3, 13).

하느님께서 항상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가까이 계실 것이라고 안심시키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버림받으셨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아무런 징표도 보이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셨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막상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하신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의 이 괴로움에 잠긴 외침은 절망이 아닌 비탄의 울부짖음이다. 그분은 너무 일찍

자신의 삶으로부터 잘리워 나갔다. 그분의 사명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분은 모욕과 거부를 당하셨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하셨을 것이다: “나는 헛되게 살았던 말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어둠이 땅을 뒤덮고 그분의 영혼에 침투했다. 이 세상 죄의 무게가 그분을 무겁게 짓누른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그분께서 전적으로 복종의 삶을 살아가신 직접적인 결과이다. 매순간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것들을 받아들이셨다.

이제 마지막 순간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로 향한 탄원이 문자 그대로 그분의 존재 저 깊이에서부터 뒤틀려 나간 것이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 무엇을 느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곧 다가올 죽음에 앞서 인간적이며 가혹한 고립에의 체험을 전적으로 피하실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분께서 비탄에 잠기신 것만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침이 들린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깊은 진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법이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와 같은 외침을 곡해하고 악의를 품고 조롱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외쳐 부르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란 것을 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죄없이 고통받는 사람의 비탄과 신뢰가 동시에 들어 있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도를 연상시킨다. 시편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진종일 외쳐봐도 당신은 대답이 없나이다.

밤새껏 당신을 부르며 휴식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그러나 거룩하신 분……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나이다.

당신을 믿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나이다.

당신께 부르짖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당신은 그들의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나이다(시편 22, 2-5).

기도 안내 : 시편 22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슬픔에 잠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뇌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뇌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괴로움 때문에 눈물과 깊은 비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독서 : 27쪽)

예수와 함께 갈바리 산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그분께서 오로지 홀로 계시며, 제자들이 그 곳에 없음을 알아챈다.

그분께 피부어지는 모멸과 조소의 소리가 들린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의 표정에 드러나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예수의 외침을 들으며,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치도록 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깨닫는다.

예수의 성령 안에서 시편 22장을 기도한다. 시편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무언가 말해 주며 내적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한, 그것을 조용히 되풀이 하며 머무른다.

이런 방법으로 시편을 계속한다. 만약 어떤 단어나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이 보여주는 방향이나 또는 위안을 온전히 흡수하면서 공명감에 젖어 머무른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 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느님, 온종일 불러 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체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고
 믿었기에 그들은 구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면하고
 당신을 믿고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더기,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야훼를 믿었으니 구해 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 주시겠지.”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주신 분,

날 때부터 이 몸은 당신께 맡겨진 몸,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느님이시오니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이 닳쳤는데 도와 줄 자 없사옵니다.
황소들이 떼지어 에워쌌습니다.
바산의 들소들이 에워쌌습니다.
오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물이 잣아들 듯 맥이 빠지고
뼈 마디마디 어그러지고,
가슴 속 염통도 찢물처럼 녹았습니다.
깨진 옹기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개들이 떼지어 나를 에워싸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돌아깁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찢려
죽음의 먼지 속에 던져진 이 몸은
뼈 마디마디 드러나 셀 수 있는데
원수들은 이 몸을 노려 보고 내려다 보며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야훼여, 모르는 체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 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 건져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 입에서 빼내 주소서.
가련한 이 몸을 사자 입에서 살려 주시고,
들소 뿔에 받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겨레에게 알리고
예배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께 영광 돌려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모두 다 조아려라.
내가 피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주셨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함도 주께서 주심이니,
주를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지키리라.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야훼를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 마음 길이 번영하리라.
온 세상이 야훼를 생각하여 돌아오고
만백성 모든 가문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만방을 다스리시는 이
왕권이 야훼께 있으리라.
땅 속의 기름진 자들도 그 앞에 엎드리고
먼지 속에 내려간 자들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리라.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오고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세세대대로 전하리라.
주께서 건져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오고오는 세대에 일러 주리라.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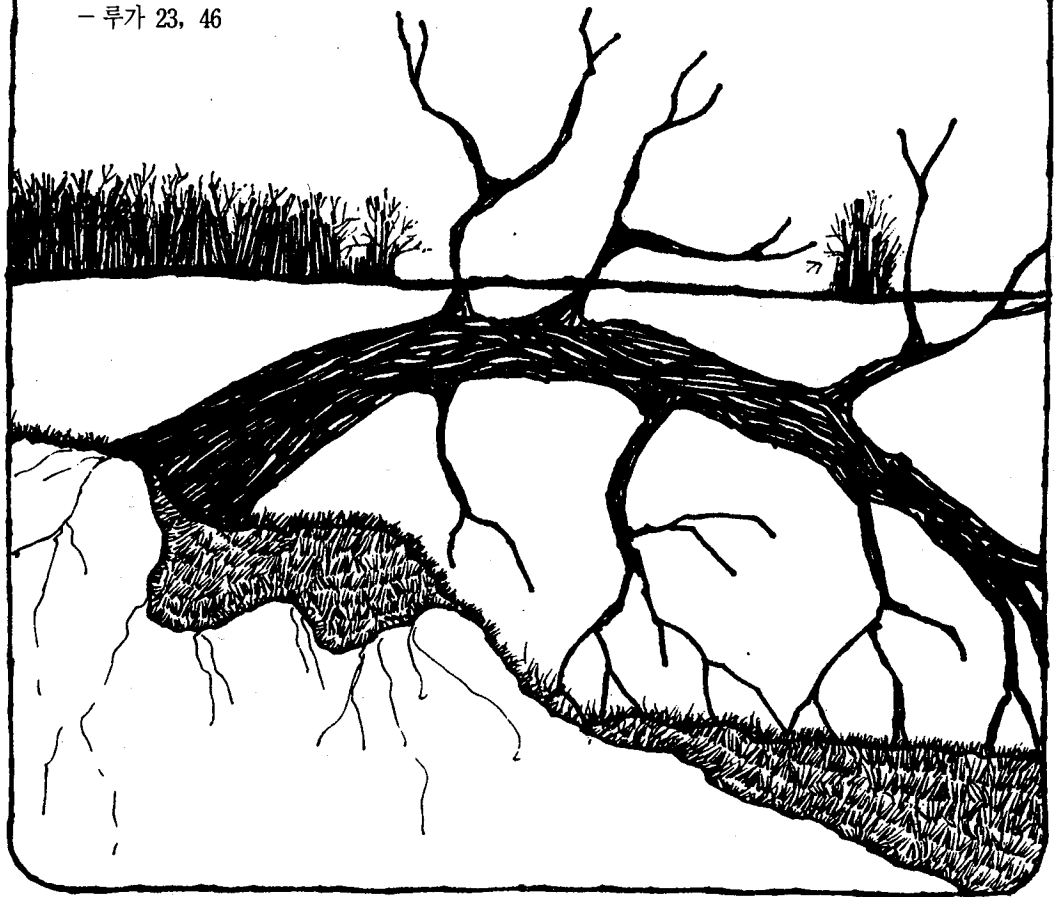
나의 가슴으로 단순히, 마음을 터놓고 예수께 말하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시편 22장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킨 단어와 영상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 루가 23, 46



여섯째 주, 첫째 날

아버지 손에 맡기다

루가 23, 44-46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해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그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우리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해한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품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경외에 가득 찬—일이다.

이처럼 순수한 사랑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존경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이 사랑에 ‘네’라고 대답하신다. 예수의 전생애를 형성시킨 하느님께 대한 순종은 이 마지막 응답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격심한 육체적 고통과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죽음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네’라고 대답하신다.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만큼, 예수의 응답은 조건 없는 완전한 포기이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전인격을 포기하신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신다.

예수께서는 사랑 속에서 붙들려 주시는 분에게 사랑 속에서 자신을 맡기신다.

아버지의 현존 안으로 예수를 놓여나게 해주는 이 사랑은 우리의 세상으로 힘을 놓여나게 해준다. 그분의 응답은 모든 창조물을 변화하게 하는 전환점이다. 그분의 포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없게 분리시키는 성전의 휘장이 찢기위 열리게 된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분처럼 사랑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입구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한 사랑은 물론, 숨막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기도 안내 : 포기-만트라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의 포기으로 깊이 침잠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만트라 : 26쪽)

십자가나 십자고상을 손에 쥐고 그것을 지켜본다. 예수께서 죽으시며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

예수께서 드리시는 기도를 듣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그분의 생애 중 이 순간에 겪으시는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끔 한 그분의 포기의 정신이 내 안에서 깊게 공명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호흡에 맞추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의 기도가 나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한다.

성전의 찢겨진 휘장을 통과해서 예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그분의 현존 안에서 예수의 포기의 기도를 계속한다.

·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나의 모든 존재를 하느님께 바치며,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단순히 이야기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나 자신의 포기, 나 자신을 바치는 말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둘째 날

주님이신 예수

필립비 2, 5-11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해설

영혼이 물질에 들어가면, 물질은 영혼으로 변화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의 포기는 그분께서 인성으로 들어오신 절대적인 순간이다. 그분의 죽음은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 준다.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지혜 8, 1) 펼쳐진 지혜가 하느님의 계획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이분 안에서 드러날 줄이야, 그와 같은 하느님의 일의 결과를 그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지녔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우뢰와 번개의 하느님(출애 19, 16)께서 못박혀 달리신 것이다.

말씀으로 창조의 에너지를 풀어놓으셨던 하느님(창세기 1장)께서는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의 종으로 나타나신 것이다(이사 52, 53).

떨시당하고 나약한, 상처받기 쉬운 이러한 하느님의 이미지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며 물론 인기도 없다. 권력과 지성과 부를 지닌 하느님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I 고린 1, 22-23).

그러나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기적인 개념에 의해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느님께서는 예수의 인성 안에서, 무한한 사랑의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는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느님의 사랑이 갖든 나약함이,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모든 권능을 지니고 있는 나약함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니고 계신 사랑에 대한 인식을 접하게 되며,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지혜를 품고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에게 진정한 왕권을 약속하는 종의 신분을

부여받았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I 고린 1, 24-25)라고 우리는 선포한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문은 새로운 존재 형식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마련해 준다. 그것은 사랑의 하느님에게 믿음을 두기로 선택한 사람들, 특히 극심하게 상처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좌절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예수께서 생명과 죽음을 통하여 복종을 가능하게 해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예수께서는 자기 억제나 자기 부정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권력이 없어 느끼는 어둠 속으로 기꺼이 빠져들며 유일하게 하느님을 드러내 주는 의식, 즉 부정과 공허 안에서 나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의식을 기꺼이 마주하도록 부르신다. 어두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믿음 속에서 자신을 내어 맡겨 선을 선택하든지, 또는 우유부단에 빠져 악의 희생자로 남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최초의 아담이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뉘어지고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께 복종하셨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화해의 문이 열린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닌 어둠을 변화시키는 아픔을 낫게 하는 힘인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하느님께서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상속받은 인간 조건을 가장 심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포기의 행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위에서이다.

자신을 비우고 내어 맡김으로써, 어둠은 빛에게 양보하며 나약함은 힘으로 변화한다.

그와 같은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무릎을 꿇고 새롭게 찾은 기쁨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기도안내 : 예수님의 마지막 숨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예수님께서 고통이 절정에 이르러 숨을 헐떡이시는 것이 보인다. 그분의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려고 절망적으로 긴장하자 그분의 가슴이 팽창하는 것이 보인다. 그분의 맥박이 점차로 약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다.

두려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욕망, 슬픔, 회한, 동정심, 안도감…… 등의 감정들을 느낀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과 나와서 맺어진 추억들을 되새겨 본다. 그분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과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 때 가졌던 체험들을 상기한다.

예를 들어, 그분의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열망……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데 충실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줄곧 그 곳에 머무른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소리를 듣는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침묵 속에서 잠시 머무른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셋째 날

생명과 성령

요한 19, 31-37

그 날은 과월절 준비일이었다. 다음 날 대축제일은 마침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 치워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예수에게 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서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기록도 있다.

해설

죽은 예수를 찢은 창으로 하여 생명과 성령이 놓여난다.

병사들이 예수의 옆구리를 찢는 순간,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의 유산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피와 물로 실체화된다.

이 장면에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탱시켜 주며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과 이미지들이 화려한 모자이크와 같이 짜여져 우리로 하여금 심오한 상징성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가장 강한 유대인 성서의 이미지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낸 과월절 희생양이다(출애 12, 7 이하). 진정한 과월절의 희생으로서 야훼의 종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다; 그분의 피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는 힘이다(이사 53, 6-7).

과월절 양은 완전해야 되므로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며 뼈도 꺾지 말아야 했다(출애 12, 46);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도 십자가 형에 처한 후에 뼈를 꺾는 관례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과월절 희생양의 가슴이 갈라져 열린 것이다; 예수의 옆구리가 찢어졌다.

의미심장하게도,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희생양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죽으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을 하느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던 산으로 전해 내려오는 모리아 산의 바위 위에 희생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지닌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창세 22, 1-9).

이 모리아의 바위-희생의 바위-는 갈바리 산에서 일어난 예수의 생명을 부여하는 희생에게 양보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그분의 피가 생명을 주는 효과가 있음(신명 12, 23)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징표인 생명수에도 아름답게 상징화되어 있다. 메마른 땅 광야에서(출애 17, 1-7) 바위로부터 물을 끌어낸 모세처럼,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 '바위'(I 고린 10, 4)이신 예수로부터 생명수를 끌어낸다.

예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시오!"(요한 7, 37)라고 말씀하신다.

기도 안내: 하느님의 어린 양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 구하는 은총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와 함께 정신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과 만트라 : 24쪽과 26쪽)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십자가 위에 힘없이 매달려 계신 예수와
죽은 몸이 보인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앞에 서 있다.

병사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것이 보인다. 병사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가 그분께서 이미 죽으셨음을 알아
차리는 것이 보인다.

그 병사가 자기의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보인다.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예수 앞에 머문다.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친
다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솔직하고 단순하게 그리스도께 이야기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넷째 날

임금님의 장례식

요한 19, 38-42

그 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 가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몰약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날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해설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 그분은 왕으로 인사를 받으셨고, 왕좌에 앉혀지셨으며, 왕이라고 선언받으셨다! 그렇다. 그분의 왕관은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왕관이었으며, 왕좌는 십자가였고, 빈정거림이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는 환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역시 왕이시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인정받지 못했던 그분의 왕위가 장례를 치르려는 이제, 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필연적으로, 내면적 현실이었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마침내 외적으로도 보다 알맞게 표현이 된 것이다. 감추어졌던 사실이 빛을 보게 되었다.

예수의 장례식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분에게는 사유의 정원 울타리로 둘러싸인 새 무덤인 ‘부자의 무덤’(이사 53, 9)이 주어진 것이다. 그분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향료가 발렸으며 장례식은 고대 왕들의 장례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느헤 3, 16).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제자였던 두 사람—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너그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산헤드린과 적의에 찬 유대인 반대파들 사이에서조차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었지만, 조롱과 거부를 당할까봐 침묵을 지키고 있음을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고 알 수 있다.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앞으로 나섰다.

죽음 때문에 힘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예수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 스스로도 약하신 분, 그분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나약하며 숨겨진 사람들 말고 그 누가 또 있겠는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그분의 왕으로서의 권능을 알아보며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아보며 선포하는 가운데,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골로 3, 3-4).

기도 안내 : 새 무덤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삶과 죽음 안에서 나를 지탱해 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은총을 주심사고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4쪽)

예수의 무덤을 둘러싼 정원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정원과 나무들과 잎사귀들을 자세히 바라본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장례 준비가 끝난 예수 앞에 선다. 그분의 몸을 감은 흰 베가 보인다. 예수의 몸에 부은 향료와 기름의 향기가 나는 것을 깨닫는다.

생명이 빠져나가 정지된 예수의 몸에 대해 관상한다. 무덤 속의 깊은 정적을 깨닫는다.

정원 울타리의 아름다움과 새로 다듬어진 무덤이 지니고 있는 신선함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특이한 향기를 사색해 본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박혔었으나 지금은 이와 같이 영광 속에서 묻히신 예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예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 주심사고 청하며, 가슴으로 예수와 대화하도록 한다. 골로사이서 3장 3-4절을 읽으며 기도를 마친다.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중에 떠오른 깨달음과 느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다섯째 날

반복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활하시고 죽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지탱해 주고 움직였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사랑을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청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28쪽)

지난 수주일에 걸쳐 행한 예수 수난에 관한 기도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묵상독서를 하는 자세로 자신의 영적일기를 며칠 동안 다시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의미가 자신의 존재 속으로 스며들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죽음이 지닌 에너지가 마치 빛처럼 퍼져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두어 번의 기도 시간을 더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 기도 후 반성

이 ‘두번째의 귀기울임’ 중에 떠오른 느낌, 체험,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여섯째 날

사랑의 노력

이사야 52, 13~53, 12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높이높이 솟아오르리라.
 우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물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만방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제왕들조차 그 앞에서 입을 가리우리라.
 이런 일은 일찍이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들어본 사람도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이들으랴?
 아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돌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 갈 만큼

멀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 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돌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은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해설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못본 척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관찰하며 우리 자신도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내적으로 좋은 점을 얻게 되며 성장하게 된다.

고통이 불가사의하고 강제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모든 문학 작품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오한 글은 아마도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고통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일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과 시인들 중 한 사람인 이사야는 애정 가득한 하느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속으로부터 석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의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조국이 완전히 무너졌고, 종교적인 구심점을 상실했으며, 망명지에서 집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추방당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미래로 그들을 데려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려고 이 글에서 시도하였다.

이 노래는 야훼의 이상적인 종을 묘사하고 있다. 이 종의 역할은 아픔과 죄와 고통을 자진해서 그리고 각각 속에서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의 유대인 동포들 간에 대단한 열정을 한 번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인간의 고통이 항상 존재한다는 현실을 활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시종일관 이사야의 고통받는 종과 자신의 신분을 일치시키시며 그 정신을 생활화하셨다(마르 8, 31; 마태 17, 22-23; 루가 18, 31-34).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써(이사 42, 1), 자신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고통을 겪는 모범적인 자세와 진정한 종이 되는 방법을, 성서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신분과 운명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대리자로서, 그리고 고통과 힘든 노고를 통해 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일에 활동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우리는 세 가지의 사랑의 작업, 즉 세 가지의 특수한 과제를 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첫번째 임무는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기 자신을 알고 완성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내면으로의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 어떠한 재능이나 한계도 신뢰와 포기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 임무는 첫번째 과제에서부터 나오며 또한 그것을 보충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아픔이 무엇이든 간에, 동정심을 갖고 그들에게 손을 뻗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배움은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힘겨운 노력이 수반된다. 그것은 조건 없이, 즉 보복 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악과 의도적으로 마주치며 사랑의 힘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번째 임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단호하게 선택하라는 부르심이며,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서 회피와 거부를 당하고 실패한, 매력없고 가난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자신을 확장함은 우리가 개인적인 고통을 겪을 때, 신비롭게도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낮게 해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 두번째의 사랑의 임무는—가장 진실된 의미에서—하나가 되는 작업, 즉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요한 15, 13).

첫번째와 두번째 과제는 세번째 임무로 뛰어넘게 해주는 것, 즉 이기적인 욕망이나 강제적인 완벽주의에 의해 쫓기는 대신, 내재해 있는 정신의 작용에 의해 자신이 형성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페이아르 드 샤르탱은 이 세 가지 임무를 상호 연결된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중심화, 탈중심화, 초중심화라고 부른다.

이 임무들은 세 배의 역동력을 지닌 빠스카의 신비, 즉 예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과

같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슴이 지닌 가장 깊은 갈망을 영원히 변형시킨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기실 때의 그분의 정신과 기도를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종의 노래에서 듣는다.

그것은 인류가 지닌 기독교적인 묵시에 비추어 믿는 이들에게 보여진 크나큰 신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과 죽음의 수수께끼는 의미가 깊어진다. 그분의 복음은 별도로 하고 그 수수께끼는 우리를 압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파괴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어,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기도 안내 : 성령의 종

+ 매일기도 양식(21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예수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사랑의 성령 안에 깊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독서 : 27쪽)

고요한 가운데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접근한다. 예수의 수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그분과 함께 소요할 때 내게 주어진 은총을 조용히 감지하면서 이사야의 말들을 천천히

읽는다.

이 노래를 기도하는 자세로 마디마디 읽어 내려가면서 종의 강력한 이미지들을 받아 들인다. 이 이미지들이 나의 내면에서 어떤 모양을 이루도록 한다.

그 종의 어떤 이미지가 나의 내면에서 특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면, 그 이미지에서 어떤 위로나 깨달음을 이끌어 내면서 그것과 함께 머무른다.

고통에서부터 영광까지 이 노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종의 정신 안으로 들어간다. 기도하는 자세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예수로 깊이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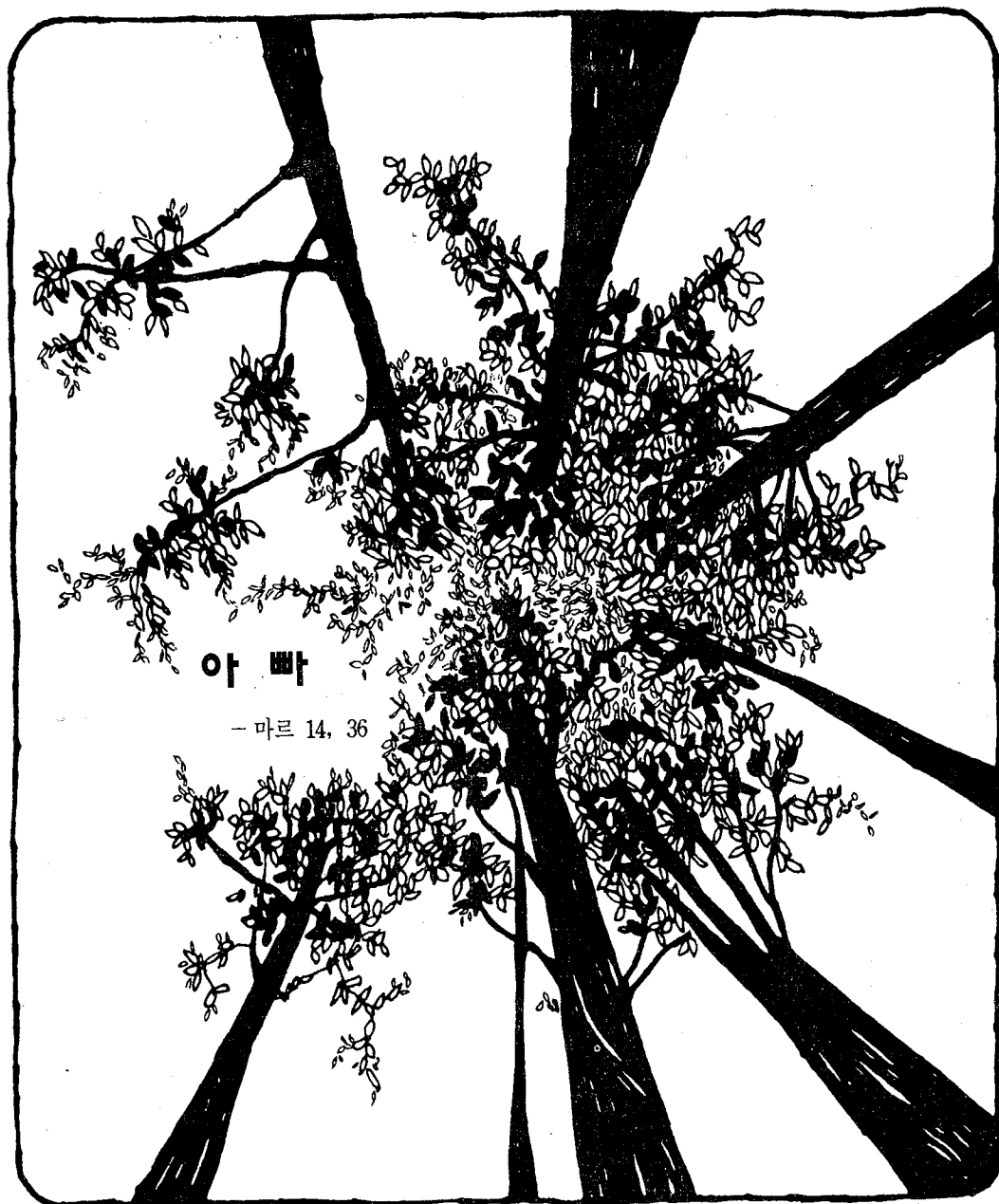
+ 마침기도 : 34쪽에 있는 대화를 참고한다.

그리스도께 마음 깊숙이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정신 안에서 살려는 나의 갈망을 말씀드린다.

192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끝마친다.

+ 기도 후 반성

내가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하는 것과 서약한 바를 영적일기에 적는다.



부록1 : 추가 기도문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가 먹고 마실 양식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수난과 죽으심이 저의 힘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제 곁에 계심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드리우는 그림자가 제가 찾으려는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제가 달아나지 말게 하시고,
저를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붙잡아주소서.
제가 죽음과도 같은 어두움을 겪을 때마다 당신의 빛과 사랑을 쏟아 주소서.
당신의 성인 성녀들과 함께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는 날이 올 때까지
항상 저를 불러 주소서.

— 영신수련 : 현대적 번역, David Fleming 신부

세계를 위한 희망의 기도

주님, 우리는 곤궁에 처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거대하고 어떻게 바뀔 수도 없어 보일 정도로 큰 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그래서 하루 속히 선(善)의 힘을 작동시켜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뻔뻔스러운 국수주의가 있는 곳에,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관심이;
 전쟁과 무력 충돌이 있는 곳에, 협상이;
 핵무기 저장이 있는 곳에, 무장 해제가;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곳에, 불간섭이;
 소비주의가 횡행하는 곳에,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려는 관심이;
 물자가 넘치는 곳에, 서로 나누며 단순하게 생활하려는 선택이;
 외적인 행동주의에 의존하는 곳에, 주님께 믿음을 갖고 의지하려는 균형이;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있는 곳에, 공동체에게 열린 마음이;
 불공평으로 인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곳에, 죄의식과 참회와 죄의 보상이;
 극악무도한 사건 앞에 마비되고 무감각해진 곳에,
 공동의 노력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소서.
 주님, 남에게서 돌봄을 받기보다 남을 돌보게 하시고,
 물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기보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완전히 체험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지닌 상처받기 쉬움에서 가능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에 아무리 손해를 입는다 해도 남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새로운 탄생과, 이 세계에 희망을 가져올,
 인생의 병을 낫게 해주는 샘을 발견합니다.

놓아 주기

줄곧 염려가 되는 그대에게,
나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하느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당신을 나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놓아 주겠습니다.
당신을 소유하듯이 붙잡고 있는 것을 그만두렵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당신으로 자유롭게 놓아 주렵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을 살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 주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생각들과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렵니다.
나의 사고를 당신의 저 너머로, 인간적인 수준 이상으로 고양시키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나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을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며
중요하게 만드는 자질과 능력이 주어진 존재로 당신을 하느님께서 보시듯이.
나도 그렇게 당신을 보겠습니다.
당신을 속박하지 않으렵니다.
인생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력을 당신은 갖지 않았다고
더 이상 믿지 않으렵니다.
당신께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 작자 미상

부록 2 :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성서 구절과 해설들을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맞추어 나열하였다. 괄호 안의 번호는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원본에 있는 번호를 나타낸다.

원리와 기초 :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 첫 권 「사랑」 참조

첫째 주 : 시리즈 둘째 권 「용서」 참조

둘째 주 : 시리즈 셋째 권 「탄생」과 다음의 것을 참조

제2주

(284) 루가 9, 28-36 : 표현할 수 없는 기쁨.....41

제11일(161)

(285) 요한 11, 1-44 : 깨어남.....46

(286) 요한 12, 1-8 : 사랑으로 향유를 붓다.....56

제12일(162)

(287) 마태오 21, 1-17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64

제3주

제1일(190-207)

(289) 요한 13, 1-16 : 대야, 물, 수건.....74

루가 22, 14-23 : 기억.....79

요한 17, 1-26 : 비밀의 장소 ; 거룩한 장소.....	84
(209) 마르코 14, 32-42 : 어둠 밖으로.....	92
마태오 6, 9-13 : 아빠-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7
제2일(208)	
(291) 마태오 26, 47-56 : 입맞춤.....	101
(292) 루가 22, 54-65 : 전야.....	106
루가 22, 66~23, 1 : 묶이신 예수.....	110
제3일	
(293) 마태오 27, 11-25 :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다.....	116
(294) 루가 23, 6-12 : 헤로데 앞에서 침묵을 지키신 예수.....	121
제4일	
(295) 요한 18, 33-38 : 19, 1-12 : 심판받는 진리.....	125
제5일	
(298) 요한 19, 13-22 : 성 금요일의 여정.....	130
요한 19, 23-24 : 왕이며 사제이신 예수.....	136
루가 23, 39-43 :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도전을 받으신 예수.....	142
(297) 요한 19, 25-27 : 어머니에서 여인으로.....	147
요한 19, 28-29 : 우리들 중의 한 사람.....	152
마태오 27, 39-44 : 십자가-축매.....	155
마태오 27, 45-50 : 비탄의 울부짖음.....	160
루가 23, 44-46 : 아버지 손에 맡기다.....	168
필립비 2, 5-11 : 주님이신 예수.....	171
요한 19, 31-37 : 생명과 성령.....	176

제6일

(298) 요한 19, 38-42 : 임금님의 장례식.....179

제7일

반복 182

이사야 52, 13~53, 12 : 사랑의 노력.....183

부록 3 : 기도 안내 목록

루가 9, 23-27 : 개인적으로 초대받음(관상).....	37
루가 9, 28-36 : 덮는 구름(관상).....	41
요한 11, 1-44 : “나오시오”(관상).....	46
요한 11, 45-54 : 예수께 응답하다(관상).....	52
요한 12, 1-8 : 현존의 향기(관상).....	56
마태오 21, 1-17 :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관상).....	64
요한 12, 23-32 : 나의 나무(관상).....	69
요한 13, 1-16 : 사랑으로 씻기다(관상).....	74
루가 22, 14-23 : 식탁 앞에서(관상).....	79
요한 17, 1-26 : 예수의 정신과 마음(묵상 독서).....	84
마르코 14, 32-42 : 정원으로(관상).....	92
마태오 6, 9-13 : 우리 아버지(묵상 독서).....	97
마태오 26, 47-56 : 배신의 밤(관상).....	101
루가 22, 54-65 : 예수의 표정(관상).....	106
루가 22, 66~23, 1 : 주 예수 그리스도(만트라).....	110
마태오 27, 11-25 : 사도신경(묵상 독서).....	116
루가 23, 6-12 : 침묵으로 들어감(관상).....	121
요한 18, 33-38 ; 19, 1-12 : 조롱과 거부를 당하신 예수(관상).....	125
요한 19, 13-22 : 십자가의 길(묵상).....	130
요한 19, 23-24 : 십자가 앞에서(관상과 만트라).....	136

루가 23, 39-43 : 천국에 대한 약속(관상).....	142
요한 19, 25-27 : 마리아(만트라).....	147
요한 19, 28-29 : 목 마르다(묵상).....	152
마태오 27, 39-44 : 예수의 마음(관상).....	155
마태오 27, 45-50 : 시편 22(묵상 독서).....	160
루가 23, 44-46 : 포기(만트라).....	168
필립비 2, 5-11 : 예수의 마지막 숨(관상).....	171
요한 19, 31-37 : 하느님의 어린 양(관상과 만트라).....	176
요한 19, 38-42 : 새로운 무덤(관상).....	179
이사야 52, 13-53, 12 : 성령의 종(묵상 독서).....	183

성서 구절 색인

창세기	아가서
1, 2.....102	2, 10-12.....17
2, 7.....101	8, 6.....58, 80
출애굽기	이사야서
12, 1-14.....80	6, 3.....57
12, 7.....177	42, 1.....43, 186
12, 46.....177	50, 5.....103
17, 1-7.....177	52, 13~53, 12.....183~185
레위기	53, 2-3. 5. 7-8. 10-11.....70
17, 11.....81	53, 4.....94
신명기	53, 7.....118, 131, 177
12, 23.....177	53, 10.....94
느헤미야서	53, 11.....95
3, 16.....180	예레미야서
시편	31, 31-32.....81
22, 2-5.....162	에제키엘서
22.....163~166	3, 2-3.....27
46, 10.....26	마태오 복음
118, 24. 29.....43	4, 1-11.....155
118, 26.....80	6, 9b-13.....97
136.....80	11, 28-30.....39
	18, 20.....31

21, 1-17	64
26, 47-56	101
27, 11-25	116
27, 39-44	155
27, 45-50	160

마르코 복음

14, 32-42	92
-----------	----

루가 복음

1, 28	148
9, 23-27	37
9, 28-36	41
9, 51	43
12, 49-50	108
22, 14-23	79
22, 33	107
22, 54-65	106
22, 66~23, 1	110
23, 6-12	121
23, 39-43	142
23, 44-46	168

요한 복음

2, 4	147
2, 19	53
7, 37	177
11, 1-44	46
11, 45-54	52
12, 1-8	56

12, 23-32	69
12, 24-25	49
13, 1-16	74
14, 6	127
15, 13	49, 76, 187
17, 1-26	84
17, 21	152
18, 33-38 : 19, 1-12	125
19, 13-22	130
19, 23-24	136
19, 25-27	147
19, 28-29	152
19, 31-37	176
19, 38-42	179

로마서

8, 14-15	98
8, 15, 26	26

고린토 전서

1, 22-25	172, 173
----------	----------

고린토 후서

4, 8-11, 14	132
-------------	-----

갈라디아서

3, 13	160
-------	-----

에페소서

3, 4	27
------	----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5, 2.....58

필립비서

2, 5-11.....171

골로사이서

3, 3b-4.....180

디모테오 전서

1, 1.....65

묵시록

22, 17.....153

BIBLIOGRAPHY

1. Abbott, Walter M., ed. *The Documents of Vatican II*. New York : American Press, 1966.
2. Albright, W. F., and C. S. Mann. *Matthew*.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71.
3. Alighieri, Dante. *The Divine Comedy*. New York : Rinehart and Co., Inc., 1954.
4. Anderson, Bernard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5.
5. Barclay, William. *The Gospel of John*. Vol. 2.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6. _____. *The Gospel of Luke*.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7. _____. *The Gospel of Mark*.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8. _____. *The Gospel of Matthew*. Vol. 1, Vol. 2.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9. _____. *The Letter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10. Benoit, Pierre. *The Pass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69.
11. Bergan, Jacqueline, and Marie Schwan. *Peace*. Privately printed 1983 ; available through Center for Christian Renewal, Box 87, Crookston, MN 56716.
12. Bernstein, Leonard. *Kaddish*. Symphony No. 3. Columbia Recording.
13. Bridges, Robert, ed. *Poems of Gerard Manley Hopki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14. Brown, Raymond. *A Crucified Christ in Holy Week*. Collegeville, MN : The Liturgical Press, 1986.
15.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XXI*.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6.
16. _____, et al.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8.
17. Brueggemann, Walter.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8.
18. Caird, G. B. *Saint Luke*. London : Penguin Books, 1963.
19. Cowan, Marian, and John C. Futrell.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 A*

- Handbook for Directors*. New York : Le Jacq Publishing, 1982.
20. Crossman, Dominic M. "The Gospel of Jesus Christ." Stonebridge Priory, Lake Bluff, IL. Mimeographed notes. 1963.
 21. de Mello, Anthony, *Sadhana, A Way to God*.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78.
 22. _____. *Wellsprings*.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85.
 23. Doore, Gary. "The Dynamics of Transformation", *The American Theosophist*. 74(May 1986).
 24. Eliade, Mircea. *The Sacred and the Profane*.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7.
 25. English, John. *Choosing Life*. New York : Paulist Press, 1978.
 26. _____. *Spiritual Freedom*.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74.
 27. Faricy, Robert. *The Spirituality of Teilhard de Chardin*. Minneapolis : Winston Press, 1981.
 28. Fenton, J. C. *saint Matthew*. London : Penguin Books, 1963.
 29. Fitzmyer, Joseph.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85.
 30. Fleming, David.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 A Literal Translation and a Contemporary Reading*.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78.
 31. Fox, Matthew. *Breakthrough*. Garden City, NY : Image Books, 1977.
 32. _____. *Original Blessing*. Santa Fe, NM : Bear and Co., 1983.
 33. Getty, Mary Ann. *Philippians and Philemon*.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34. Gill, Jean. *Images of My Self*. New York : Paulist Press, 1982.
 35. Gibran, Kahlil. *Lazarus and His Beloved*. Greenwood, CT : New York Graphic Society, Ltd., 1973.
 36. Harrington, Wilfred. *Mark*.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79.
 37. Harriot, John. "Himself He Cannot Save." *The Way*. 10(October 1970) : 318-326.
 38. John Paul II. *On the Christian Meaning of Suffering*. Washington, DC : USCC, 1984.
 39. Jung, Carl G. *A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40. _____.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 Valor Publications, 1964.
 41. _____. *The Visions Seminars*, Book 1, 2. Switzerland : Spring Publications, 1976.
 42. Küng, Hans. *On Being a Christian*.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76.
 43. La Verdiere, Eugene, *Luke*.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44. Luke, Helen M. *Woman : Earth and Spirit*. New York : Crossroads, 1985.
45. McBrien, Richard P. *Catholicism, Vol. 1, 2*. Minneapolis : Winston Press, 1980.
46. McGann, Diarmuid. *The Journeying Self*. New York : Paulist Press, 1985.
47. McKenzie, John. *Dictionary of the Bible*. Milwaukee : Bruce Publishing Co., 1965.
48. _____. *Second Isaiah*.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8.
49. McPalin, James. *John*.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79.
50. Magaña, José A. *Strategy for Liberation*. Hicksville, NY : Exposition Press, 1974.
51. Marsh, John. *St. John*. London : Penguin Books, 1968.
52. Meier, John p. *Matthew*.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0.
53. Moltmann, Jürgen, and Johann Metz. *Meditations on the Passion*. New York : Paulist Press, 1979.
54.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The Sacramentary*. New York : Catholic Books Publishing Co., 1974.
55. Neumann, Erick. *The Great Mother*.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56. Nineham, D. E. *Mark*. Baltimore : Penguin Books, 1963.
57. Oesterreicher, John M. ed. *The Bridge*. New York : Pantheon Books, 1955.
58. O'Neill, Eugene. *Lazarus Laughed in The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 Random House, 1954. 273-376.
59. Paoli, Arturo. *Freedom to be Free*. Maryknoll, NY : Orbis Books, 1973.
60. Peck, M. Scott. *People of the Lie*. New York : Simon & Schuster, Inc., 1983.
61. Pennington, M. Basil. *Centering Prayer*. Garden City, NY : Image Books, 1982.
62. Perkins, Pheme. *Resurrection*.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84.
63. Rahner, Karl.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New York : The Seabury Press, 1978.
64. _____. *Spiritual Exercises*.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56.
65. Rollings, Wayne G. *Jung and the Bible*. Atlanta : John Knox Press, 1983.
66. Sanford, John A. *The Kingdom Within*. New York : Paulist Press, 1970.
67. Scullion, John. *Isaiah 40-66*. Wilmington, DE : Michael Glazier, 1982.
68. Stanley, David M. *A Modern Spiritual Approach to the Spiritual Exercises*.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71.
69. Tannehill, Robert C. *A Mirror for Disciples : A Study of the Gospel of Mark*. Nashville : Disciples Resources, 1977.
70. Taylor, Vincent.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66.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71. Teilhard de Chardin, Pierre. *The Divine Milieu*. New York : Harper and Row, 1966.
72. Ulanov, Ann and Barry. *Primary Speech : A Psychology of Prayer*. Atlanta : John Knox Press, 1982.
73. Veltri, John. *Orientations, Vol. 1 : A Collection of Helps for Prayer*.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79.
74. _____. *Orientations, Vol. 2, Annotation 19 : Tentative Edition*.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81.
75. von Franz, Marie-Louis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Dallas : Spring Publications, 1982.
76. von le Fort, Gertrud. *The Wife of Pilate*. Milwaukee : Bruce Publishing Co., 1957.
77. Welch, John. *Spiritual Pilgrims*. New York : Paulist Press, 1982.
78. Whitmont, Edward. *Return of the Goddess*. New York : Crossroads, 1984.
79. Woodman, Marion. *Addiction to Perfection*. Toronto : Inner City Books, 1982.
80. _____. *The Pregnant Virgin*. Toronto : Inner City Books, 1985.

NIHIL OBSTAT

Andreas Yeom, Censor
Seoul, die 25, Aug. 1994

IMPRIMATUR

Stephanus Cardinal Kim
Archiepiscopus Seoulensis
Seoul, die 25, Aug. 1994

포 기(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4권)

1994년 11월 20일 펴냄

글쓴이 재크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옮긴이 조 순 자

펴낸이 정 옥 동

펴낸데 성모출판사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10

전화 : 266-4251, 275-0924 FAX : 275-0925

등록 : 1988년 3월 21일 제2-530호

값 6,000원

옮긴이

조순자(안젤라) 수녀

성심여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Marymount University, Virginia
회계학 석사, 수학과 교사
Washington Theological Union,
Washington, D.C. 종교 교사
현, 미국 버지니아주 분도수녀원

감수자

변희선(안셀모) 신부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예수회 한국지부본부 소속 회원
현재, 미국 Boston College
조직신학 박사 과정 중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네번째 책인 이 「포기」는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예수의
전적인 복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어떻게 활용되며
변형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성모출판사

ISBN 89-7048